



#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15 (2010)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 머릿말

최근, 필자의 목회의 첫사랑을 쏟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오렌지사랑의교회를 12년간 목회할 때 매주 주보에 실린 설교요약을 검토하면서 그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오늘날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 생명샘( living Stream)이란 제목으로 편집하여 서로 나누며 캄보디아 선교지의 교회를 섬기는 캄보디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목적에서 한영으로 편집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목회를 시작한 후 5년이 되기까지 필자는 개혁신앙을 증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스스로 평가할 때 변화되지 않는 교우들의 영적 삶을 보고 슬럼프에 빠진 일을 기억한다. 그 대답을 얻기위해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3년동안 공부함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되었다. 강해설교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프로젝트를 목회에 적용하여 1996년도 졸업할 때, 나의 목회사역과 나의 신학적 이론이 더욱 성경적 신학과 신앙으로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

1994년 매주마다 설교한 내용이 현재의 나의 신학과 신앙과 같은 흐름을 타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여 편집하였다. 그 때는 단지 한글을 아는 사람을 대상하여 기록했는데 지금은 영어권 독자나 나아가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크마어로 번역되어 나눌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본래 생명샘이란 제목의 3권의 책은 브니엘 장로교회와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틈틈히 적어 놓은 나의 신앙 단상들을 모은 것인데, 여기서는 오렌지 사랑의 교회 목회할 때 강단에 외친 설교의 요약을 그 이름으로 편집하였다.

AI 의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나의 글들을 번역함과 편집하는데 이용되었으나 그 모든 내용은 필자의 검토를 통해 되었기에 나의 번역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 대한 나의 이해와 강조점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신앙경주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 목표, 복음전파에 이르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적은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2004. 6.25.

주 안에서

전화령 목사, 미국 포모나 서재에서

## 목차

1. 가난한 마음 ( 마5:33-48, 마5:4) 2010. 1.11.  
**Poor Heart (Matthew 5:33-48, 5:4) 2010. 1.11.**
2. 애통의 마음 (마6:1-15) 2010.1.11  
Heart of mourning (Matthew 6:1-15) 2010.1.11
3. 그리스도 제자로 자라자 (엡4:1-16) 2010.1. 3.  
Let's grow as disciples of Christ (Ephesians 4:1-16) 2010.1. 3.
4. 성령의 능력 (엡5:15-21) 2010 1. 17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Ephesians 5:15-21) 2010 1. 17
5. 에녹 시대의 부흥 (창5:21-24, 유 1:14-15) 2010. 1. 24  
Revival in the time of Enoch (Genesis 5:21-24, Jude 1:14-15)
6. 노아에게 일어난 부흥 (창6:1-22) 2010. 1. 24.  
Revival occurred in Noah (Genesis 6:1-22)
7. 야곱에게 부어진 성령 (창 32:22-32) 2010. 2. 14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Jacob (Genesis 32:22-32) 2010. 2. 14
8. 모세에게 부어진 성령 (출3:1-12) 2010. 2.21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Moses (Exodus 3:1-12) 2010. 2.21
9. 미스바에 부어진 성령(삼상7:1-11) 2010. 2. 28  
The Holy Spirit poured out at Mizpah (1 Samuel 7:1-11) 2010. 2. 28
10. 다윗에게 일어난 부흥 (삼하6:12-23) 2010. 3. 14  
Revival happened to David (2 Samuel 6:12-23) March 14, 2010
11. 솔로몬에게 부어진 성령 (왕상3:1-15) 2010. 3.7.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Solomon (1 Kings 3:1-15) 2010. 3.7.
12. 엘리야의 성령님 (왕상 19:1-9) 2010. 3. 20.  
The Holy Spirit of Elijah (1 Kings 19:1-9) March 20, 2010.
13. 엘리사의 성령님 (왕하2:1-18) 2010. 3. 28.  
Elisha's Holy Spirit ( II King 2:1-18)
14. 하나님의 만족 (사53:10-12) 2010. 4.4  
God's Satisfaction (Isaiah 53:10-12) 2010. 4.4
15. 이사야에게 임한 부활의 영 (사6:1-18) 2010. 4. 4.  
The Spirit of Resurrection Comes to Isaiah (Isaiah 6:1-18) 2010. 4. 4.

16. 예레미야에게 임한 성령(렘33:1-26) 2010. 4.11.  
The Holy Spirit came upon Jeremiah (Jeremiah 33:1-26) 2010. 4.11.
17. 아모스가 본 소망 (암9:11-15) 2010. 5.30.  
The hope that Amos saw (Am 9:11-15) 2010. 5.30.
18. 요엘이 본 오순절 사건(욥2:28-32) 2010. 5.23.  
The Pentecost incident seen by Joel (Joel 2:28-32) May 23, 2010.
19. 오바다가 받은 묵시 (옵 1:1-21) 2010. 6. 6  
The vision Obadiah received (Ob 1:1-21) 2010. 6. 6
20. 나훔 선지자의 하나님 (나훔1:1-15) 2010. 6. 20.  
God of Prophet Nahum (Nahum 1:1-15) 2010. 6. 20.
21.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 (미4:1-5) 2010. 6. 13  
Let us climb the mountain of the Lord (Micah 4:1-5) June 13, 2010
22.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합3:1-19) 2010. 6. 27.  
Prophet Habakkuk's prayer (Habakkuk 3:1-19) June 27, 2010.
23.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 (슥3:14-20) 2010. 7. 4.  
People who are God's delight (Zeph 3:14-20) July 4, 2010
24. 만국이 진동하는 날 (학2:1-9) 2010. 7. 11.  
The day when all nations shook (Hag 2:1-9) July 11, 2010.
25. 승리의 세 단계 (롬6:1-14) 2010. 7. 18  
Three Steps to Victory (Romans 6:1-14) July 18, 2010
26. 치료의 시대 (말4:1-8) 2010. 8. 1.  
The Age of Healing (Malachi 4:1-8) 2010. 8. 1.
27. 추수일꾼(마9:35-38) 2010. 10. 31  
Harvest Workers (Matthew 9:35-38) October 31, 2010
28.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라 (롬 12:1-8) 2010. 8. 29  
Us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Romans 12:1-8) August 29, 2010
29. 성경적 종교 (약1:26-27) 2021. 9. 19.  
Biblical Religion (James 1:26-27) 2021. 9. 19.
30.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롬15:14-21) 2010. 9. 21.  
Priest of the Gospel of God (Romans 15:14-21) 2010. 9. 21.
31.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롬13:11-14) 2010. 9. 5  
Towards complete salvation (Romans 13:11-14) 2010. 9. 5

32. 주의 뜻이 세워진 나라 (마20:1-16) 2010. 8.8.  
A nation where the will of the Lord is established (Matthew 20:1-16)
33. 조용한 칠천인 (롬 11:1-10) 2010. 8. 15.  
The Quiet Seven Thousand (Romans 11:1-10) 2010. 8. 15.
34. 로마서의 선교 (롬 16:17-20) 2010. 8. 22.  
Mission in Romans (Romans 16:17-20) August 22, 2010.
35. 삼위일체 하나님 (고후13:13) 2010. 9. 26  
Trinity God (2 Corinthians 13:13) September 26, 2010
36. 계시를 받은 자 (마 11:25-30) 2010. 10. 3.  
Those who received revelation (Matthew 11:25-30) 2010. 10. 3.
37. 나의 사랑하는 성경(시 119:97-104) 2010. 10. 10  
My Beloved Bible (Psalm 119:97-104)
38. 창조의 하나님 (시 148:1-14) 2010. 10. 17  
God of Creation (Psalm 148:1-14) 2010. 10. 17
39. 섭리의 하나님 (마10:24-33) 2010. 10. 24.  
God of Providence (Matthew 10:24-33) 2010. 10. 24.
40.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 마1:1-16) 2010. 11. 7.  
Descendants of Abraham and David (Matthew 1:1-16) 2010. 11. 7.
41. 약속된 치료 (마4:23-25) 2010. 11. 14  
Promised Healing (Matthew 4:23-25) 2010. 11. 14
42. 예배하는 자의 감사 (마2:1-12) 2010. 11. 14.  
Worshiper's Gratitude (Matthew 2:1-12) 2010. 11. 14.
43. 너는 나를 따르라 (요21:20-23) 2010. 11. 29  
Follow me (John 21:20-23) 2010. 11. 29
44.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라 (마5:13-16) 2010. 12. 5.  
B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Matthew 5:13-16) 2010. 12. 5.
45. 말씀의 강력 (시119:65-72) 2010. 12. 12  
The Power of the Word (Psalm 119:65-72) 2010. 12. 12
46. 성탄의 즐거움 (마8:23-27) 2010. 12. 19.  
The Joy of Christmas (Matthew 8:23-27) 2010. 12. 19.
47. 그리스도 탄생과의 연합 (엡2:1-10) 2009. 12. 20.  
Union with the Birth of Christ (Ephesians 2:1-10) 2009. 12. 20.





## 1. 가난한 마음 ( 마5:33-48, 마5:4) 2010. 1.11.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사도의 질문은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믿었는데 성령 받은 확신이 없거나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면 뭔가 잘못 된 것으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관심이 부흥인데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핍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산상보훈을 5번에 걸쳐 생각하게 된 것은 좋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 기 때문입니다.

모든 윤리는 8복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본문은 맹세에 관하여, 또 눈은 눈으로 갚는 율법이 어떻게 원수 사랑 으로 완성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 가난이 우리 마음에충만해야합니까?

첫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의 복은 말씀묵상인데 이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7:5-7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 같은 마음, 풀 같은 마음의 변화는 말씀에 부딪칠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제자들의 마음은 미련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눅24:25) 그래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부딪쳐야합니다.

마음의 가난을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자의 길을 선택해여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낮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때로는 육체적 고행도 필요합니다. 굶은일도 해 보고 창피를 당함으로 가난한 마음 소유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1) 주권인정(33-34)- 헛맹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서원과 맹세는 제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 욕심에 끌려 맹세하는 것은 주권을 믿지 않는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먼 동리에 가서 이를 보리라 할 때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 것도 하리라 해야 합니다. (약4:15)

2) 용서의 마음(39-42)- 미국에 하루에 70명 꼴(1년 2만1천건- 자살,낙태를 제외한 통계)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인의 요점은 분노(anger)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미움, 라가라 미련한 놈이란 말로 표현되며 이것은 용서할 때에만 사라집니다.

3) 하나님 앞에 서야합니다.(43-48) -생각, 말, 묵상, 행동, 선택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합니다. 기도, 예배, 성경읽기, 교회 나오기 등 순종 하는 것이 모두 가난한 마음을 배우게 하는 기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불은 바로 가난한 마음속에 타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 **1. Poor Heart (Matthew 5:33-48, 5:4) 2010. 1.11.**

The apostle's question,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does not mean that you did not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in Jesus, but rather that you believed but were not confident that you had received the Holy Spirit or that you need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nd there is no change, you believe that something is wrong, and there must be change. This is related to the state of our heart, and when the Holy Spirit comes, there will definitely be change.

Our interest in the new year is revival, and for this, we want to start by examining our hearts first.

It is an opportunity of good grace to think about the Sermon on the Mount five times. This is because the Sermon on the Mount shows how the Old Testament law was fulfilled in Jesus. All ethics stand on the foundation of the eight blessings.

The text shows about oaths and how the law of paying an eye for an eye is fulfilled by loving one's enemies. In order to live a righteous life, we must go forth with poverty of spirit. I pray that you may be filled with poverty of spirit.

First, blessings begin with a poor heart. The blessing in Psalm 1 is meditating on the Word, which is cultivating the heart. Jeremiah 17 says that blessed is the heart that relies on God and does not rely on men. A change in a heart like water or a heart like grass is possible only when one encounters the Word. The hearts of the disciples who were slow to believe the Word were filled with foolishness. To get out of a foolish position, you must confront the Word.

Please intentionally choose the path of the lowly for the sake of poverty of heart.

Others are better than me. I hope you live with the mindset that I am your servant. Physical austerity is also necessary. Please focus on having a poor heart by doing bad things and being embarrassed. Because this is a blessed path.

Second, what should we do to have a poor heart?

1) Recognition of sovereignty (33-34) - A false oath is an act that occurs when one does not acknowledge the sovereignty of the Lord. Vows and oaths are sacrifices. However, swearing because of human greed comes from not believing in sovereignty. Even when we say we will go to a distant place and see this, we must do so while acknowledging the Lord's lordship. If it is the Lord's will, we must say that we will do this and that.

2) A heart of forgiveness (39-42) It is said that 70 murders occur every day in the United States (21,000 murders per year - statistics excluding suicide and abortion). The point of murder is anger. This feeling is expressed by the words 'hatred' and 'ragara you fool' and it disappears only when you forgive.

3) You must stand before God. (43-48) All your thoughts, words, meditation, actions, and choices must begin before God. Obedience such as prayer, worship, reading the Bible, and going to church are all opportunities to learn to have a poor heart.

The fire of revival in the Ephesian church burns right in the hearts of the poor. I hope you live this year enjoying the heaven that comes to poor hearts.

## 2. 애통의 마음 (마6:1-15) 2010.1.11

심령이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됩니다. 자기 죄와 자기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늘 위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 할꼬?" 라고 애통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때 받는 성령을 가리키며 믿은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성령 이 오시면 심령에 하늘 위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믿음 에서 올 수 있기에 성령의 선물은 회개의 심령 위에 부어집니다. 그 내용 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애통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9가지 슬픔의 용어가 나오는데 인간생활에 팔요한 잘 짜인 옷감과 같습니다. 그 중 펜테오란 말 은 경건의 슬픔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 온 슬픔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슬픔 자체에 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위로가 임하는 것 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배 위야합니다. 웃음을 좋아하는 현대교회는 특히 애통을 선호해야합니다. 통 곡과 애통의 마음을 구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늘 위로 속의 양약과 같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둘째. 약속된 하늘 위로란 무엇인가요? 위로(파라클레오)란 위로자, 돕는 자의 명사형인데 보혜사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신령한 보호와 도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사61:2-3)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이란 실속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강한 자로 사는 것입

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언제나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부흥이나 사마리아의 부흥이나 에베소교회의 부흥은 모두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늘 위로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신자의 임무입니다.

셋째. 어떻게 애통할까요? 특히 죄를 사랑하고 탐욕에 치우침, 철면피(presumption), 미룸(procrastination)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연구와 기도의 습관을 열심히 배양해야 합니다. 진정한 애통함이 진정한 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부터 애통하는 마음의 샘이 터져나게 합시다.

## 2. Heart of mourning (Matthew 6:1-15) 2010.1.11

If you are poor in spirit, you will naturally mourn. Because he knows his sin and his helplessness. At that time, heavenly comfort comes. In Acts 2, the people who heard Peter's sermon asked, "What shall we do?" When you mourn, it is said that if each of you repent and accept your sins, you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as a gift. This refers to the Holy Spirit received when one believes, and to those who believe, it refers to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is is because when the Holy Spirit comes, heavenly comfort arises in our hearts. Since true repentance can come from faith,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s poured out on a repentant heart. Let's think about it in more detail.

first. What is a heart that mourns? There are nine terms for sorrow in the Bible, and they are like a well-woven fabric essential to human life. Among them, the word pendeo refers to the sorrow of piety. Paul is concerned about doing

the will of God. I spoke with all my sadness. In other words, it is a heart of repentanc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sadness itself, but comfort comes through God's forgiveness. We must learn to have a heart of sorrow before God who sees in secret. The modern church that loves laughter should especially prefer mourning. There is hope only if we seek a heart of wailing and mourning. At that time, you will truly come to know the grace that is like good medicine in heaven.

second. What is the promised sky above? Comfort (paracleo) is the noun form of comforter or helper, and refers to the grace of the Comforter. It means that divine protection and help will come to those who repent (Isaiah 61:2-3). This is revival. Revival is a practical life and living as a strong person with God's help. Strength of the inner self is always given to those who mourn. The revival of the early church before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revival in Samaria, and the revival of the church in Ephesus were all devoted to enjoying heavenly grace throug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making it known to the world. I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the mission of believers to create a world filled with heavenly comfort.

third. How do we mourn? In particular, we must love sin and abhor greed, presumption, and procrastination. We must also diligently cultivate habits of Bible study and prayer. Because true mourning can create true comfort. Let us let the fountain of mourning burst forth from within us.

### 3. 그리스도 제자로 자라자 (엡4:1-16) 2010.1. 3.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대위임령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실행해야 할 주님의 유언적 사명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곧 부흥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원리 때문입니다.(딤후2:2)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 습니까?

첫째,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1 절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주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충만한 신장의 분량입니다.(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진실과 정직과 의를 나타내게 되는 변화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연합(the Unity of Holy spirit)"이라고 말했습니다.(4-7) 우리 안의 마귀와 세상형상, 바알과 아세라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성장 방법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15-16 참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두가지 일 곧, 곧,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야합니다. 1) 믿는 일- 요한복음에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하신대로



제자로서 성장하려면 믿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합니다. 2) 다음에 그를 아는 일입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견고해집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에서 얕으로 나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셋째, 성장 방향은 주님 마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성장의 목표가 주님의 키이고, 성장의 방법이 성경에 착념 하여 그를 믿고 아는 일이라고 했는데, 제자의 모임인 교회 가 한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키만큼 자라려면 주님 마음을 품어야합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3. Let's grow as disciples of Christ (Ephesians 4:1-16) 2010.1. 3.

The Great Commissio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s the Lord’s testamentary mission for the church in the world to carry out. Making disciples points to revival and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In order to make a disciple, he must first become a true disciple of the Lord. This is because of the principle that a faithful person can teach others (1 Timothy 2:2). How can one grow as a disciple of the Lord?

First, the growth goal is the fullness of Christ. Verse 1 teaches that God gives various gifts to the church so that it may grow to the full stature of Christ. The fullness of Christ is the fullness of His st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In other words, it means taking after the character of

Christ. It refers to a change that reflects his love, mercy, truth, honesty, and righteousness. Paul said, “The Unity of Holy Spirit.” (4-7) The goal is to change the images of the devil, the world, Baal, and Asherah within us into the image of Christ.

Second, the way to grow is to become one in what you believe and what you know. Verse 13 says, “Until we all become one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il we reach the full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Refer to 15-16) In order to restore the image of Christ, the church does two things. soon,

In other words, we must focus on believing in and knowing the Son. 1)

Believing - As John says in the Gospel, “God’s work for us to do is to believe in Christ,” we must be passionate about believing in order to grow as disciples.

2) Next comes knowing Him. Believing and knowing are connected. As you progress from faith to faith, you will come to know God more and more, and your spiritual knowledge of God will become solid. This means that a righteous person will live by faith.

Third, the direction of growth is to possess the heart of the Lord. It is said that the goal of growth is the height of the Lord, and that the method of growth is to pay attention to the Bible and believe in and know Him. However, the church, a gathering of disciples, needs to regularly check in order to create one new person. In order to grow to the height of the Lord, you must have the heart of the Lord. We must have a humble heart, a gentle heart, and a long-suffering heart.

#### 4. 성령의 능력 (엡5:15-21) 2010 1. 17

지난 새벽에 생각한 산상보훈의 8복이 세상 복과 복받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8복의 마음의 변화는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길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하여 성령충만을 받아라(18)고 명령합니다.

첫째,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이티가 지진으로 곤경을 당하자 다른 나라가 즉시 도와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신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구실을 하며 모든 방면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19-21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마음이 변화된 모습입니다.(19-20)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고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에 성령이 일하시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개인의 심령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찬송하냐? 노래 하냐? 감사하냐?"를 자문하면 자신의 상태를 금방 알게 됩니다.

둘째, 이웃관계의 변화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방면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랑과 복종이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 친절, 화평 그리고 고난을 참는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8복 후반부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이웃관계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충만하여 권능으로 늘 새로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성령의 권능의 필요성과 성령의  
열매를 안 우리는 이제 그 권능을 받기위하 여 사도의 방법을 잘 배워  
그대로 적용해야합니다. 1. 성령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해하며 2. 성  
령이 싫어하시는 죄 를 회개하며 (행2:38) 3. 믿음으로 갈망해야합니다.  
시간을 내서 항상 구해야 합니다. (마5:6) 주리고 목마름으로 구해야 합  
니다. 우리가 성령의능력을 받을 때 심령, 가정, 생업, 재난 문제가 해결  
됩니다. 고통의 때에 성령으로 새 역사를 이룹시다.

#### 4.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Ephesians 5:15-21) 2010 1. 17

Last morning, I saw that the eight blessings of the Sermon on the Mount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worldly blessings and ways to receive blessings. 8 I  
learned that the change of heart is not accomplished through one's own efforts,  
bu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regenerated one. So, Paul is  
convinced that the way to receive, enjoy, and spread the blessing is to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commands u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18).

First, why do we ne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en Haiti was in  
trouble due to an earthquake, other countries immediately came to help  
because they had the power to do so. Just as believers must be fill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y can serve as pillars and foundations of truth and

revea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in all aspects. You can pay it. In this wa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he driving force of all activities.

Second, what is the evidence of receiv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verses 19-21 of the text, we can discover two aspects of those who have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irst, the individual's heart has changed. (19-20) You can praise with your heart and always be thankful with your heart. This is because it is a fruit that occurs naturally as the Holy Spirit works in the heart. When you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 change inevitably occurs in an individual's heart, so if you ask yourself, "Are you praising? Are you singing? Are you giving thanks?" you will quickly know your condition.

Second, there are changes in neighborly relationships. Verse 21 tells us to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fear of Christ. Christ-centered love and obedience in all aspects i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is is because it creates mercy, purity, peace, and the patience to endure suffering. In the second half of the 8th blessing, guarding the heart is what the Holy Spirit accomplishes in neighborly relationships. To do this, we must be filled with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every day and constantly be renewed with power.

Third, how do we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Now that we know the need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e must learn and apply the apostle's method in order to receive that power. 1. Understand the Holy Spirit and the meaning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2. Repent of the sins that the Holy Spirit hates (Acts 2:38), and 3. Desire with faith. You must always take the time to seek. (Matthew 5:6) We must seek with hunger and thirst. When we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ur spiritual, family, livelihood, and disaster problems are solved. In times of suffering, let us make new history through the Holy Spirit.

## 5. 에녹 시대의 부흥 (창5:21-24, 유1:14-15) 2010. 1. 24

아담의 7대손 에녹에게 부여된 부흥의 영은 더 놀랍고 풍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인 후예의 죄악 문화가 기하 급수적으로 번져갔으나 하나님의 부흥의 불은 마그마처럼 조용히 움직이다가 에녹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는 가르침대로 어두운 때에 하나님 백성 위에 성령을 부어 종말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몇 사람이 구원받고 얼마나 모였는지 알지 못하나 분명 한 것은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어느 모로나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준비된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에녹시대에 일어난 부흥의 증거입니까?

첫째 증거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창5:24) 에녹은 에노스 부흥의 추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 부흥의 여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어떻게 동행 할 수 있었는가요? 성령의 불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에녹이 가정에서 사랑과, 복종,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임하신 부흥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증거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히11:5) 참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1) 생애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겼다는 뜻입니다. 부흥의

영은 목적의식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2) 하늘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입 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들리운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역시 마지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브라 함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재림 때 저 천 국에 올림 받는 일은 성령이 관 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거는. 그리스도.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유1:14-15) 경량이 임하시면 환상, 예언 그리고 꿈을 꾸리라는 진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심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입니다.(벧전2:9) 그는 무엇을 예언했나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15) 다니엘 7:13절의 예언대로 수만의 천사들이 인자와 함께 와서 모든 악인의 악행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 졌고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 하여 부흥의 영을 받으시라.

## 5. Revival in the time of Enoch (Genesis 5:21-24, Jude 1:14-15) January 24, 2010

The spirit of revival poured out on Enoch, Adam's 7th generation descendant, was even more surprising and abundant. The sinful culture of Cain's descendants spread exponentially, but God's fire of revival moved quietly like magma and arose centered on Enoch. According to the teaching that grace will abound where sin abounds, God prepared for the end times by pouring the Holy Spirit on God's people in a time of darkness.



We do not know how many people were saved and how many people were gathered, but what is clear is that those chosen are prepared to receive complete salvation in every way throug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hat is the evidence of revival that occurred during Enoch's time?

The first evidence is Enoch's walk with God. (Genesis 5:24) Enoch can be seen as the harvest period of Enoch's revival. He appears to have lived a normal life praying and worshiping God in the aftermath of the Enos revival. Then he receive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hat is important is that Enoch lived and walked with God for 300 years. This is evidence of revival. The world is evil, so how could you be together? Thi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fire of the Holy Spirit. Without the Holy Spirit, Emmanuel life is impossible in this world. The reason Enoch was able to live a life of love, submission, and obedience in his family was because of the fire of revival that came within him.

The second proof is that we lived by faith. (Hebrews 11:5) True faith cannot arise with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writer of Hebrews states this in two ways. 1) Because the goal of life is to please God. It means that he glorified God and enjoyed God. Because the spirit of revival renews our sense of purpose. 2) Because I was raptured to heaven. Just as Elijah was alive and lifted up into heaven, Enoch did not see his death but was called by God. What is important is how a person decorates the end. The Bible also considers the end to be important. Living by faith like Abraham and being taken up to heaven at the Second Coming is managed by the Holy Spirit.

The final proof. Christ. The advent was predicted. (Jude 1:14-15) The truth that when Geng Liang comes, we will have visions, prophecies, and dreams is

applied. All saints of the weak are priests and prophets at the same time. (1 Peter 2:9) What did he prophesy? He prophesied the salvation and judgment of Christ. (15) As prophesied in Daniel 7:13, tens of thousands of angels will come with the Son of Man and judge the evil deeds of all wicked people. It was accomplished with the first coming of Christ and was prophesied to be fulfilled at the second coming. Let us receive the spirit of revival by longing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 6. 노아에게 일어난 부흥 (창6:1-22) 2010. 1. 24.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어떻게 그 어두운 시대에 경건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의 심령과 가정에 부어진 부흥의 영 때문이다. 에녹은 300년간 동행하다가 들리움 받았으나 노아는 물 심판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왜 교회는 노아 위에 임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구해야하는가?

첫째,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아 한 사람을 가리켜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모세의 기록과 믿음으로 산 사람이란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은 성령의 평가이다.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거듭나게 되면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순종의 라인을 통해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순종의 사람이 된다. 순종의 마음은 맹종과 달라서 언제나 겸손의 나움에서 일어난다. 성령은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둘째, 부흥의 영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 이 친히 행하신 일이었다. 방주를 준비하시고 40일간 비가 내렸다..온 세계가 다 물 아래 잠겼다. 그 물이 110일을 덮었기에 온 세상은 초토화 되었다. 물로 인해 더럽혀지고 황폐화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는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하셨다. 창세기 8:1에 바람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의 물이

제거될 수 없다. 에드워드는 홍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석했다. 온 세상의 많고 깊고 넓고 치명적인 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시킴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이다. 성령의 부어짐은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세계를 만든 것이다. 세상은 처음같이 새롭게 되었다.

세째, 부흥의 영이 첫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재단을 쌓았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에 타오르는 증거이다. 기도, 예배, 믿음, 동행은 순종함으로 더 힘있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서 처음 맺으신 언약을 다기 확인하셨다. 이것을 어떤이는 자연언약이라 부른다. 은혜부어주시려는 첫언약을 지킬 때 본래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 이후 이 세상은 자연법칙 아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 언약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더 분명히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일반은총 속에서 특별은총을 누리며 사는 더 복된 사람이 된 것이다.

## 6. Revival occurred in Noah (Genesis 6:1-22) January 24, 2010.

How was Noah, who walked with God by faith like Enoch, able to maintain godliness in those dark times? This is because of the spirit of revival poured into his heart and family. This is because Enoch walked with the Lord for 300 years and was caught up, but Noah walked with the Lord even during the water judgment and lived a life of obedience. Why should the church seek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Noah?

First, because he must be a man of obedience. Moses' record of Noah as a righteous man, a perfect man, and a man who walked with God, and the writer

of Hebrews' record of a man who lived by faith are the evaluations of the Holy Spirit. It was because of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that we were able to appear as light in dark times. Becoming a person of obedience is impossible without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is is because when a person is born again, the heart of absolute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arises. All of God's work in the Bible was revealed through the line of obedience.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people, they become people of obedience. The heart of obedience is different from blind obedience and always arises from humility. For the Holy Spirit "hides things from the wise and prudent, and reveals them to little children."

Second, because the spirit of revival restores the world. Noah's flood was something that God himself did. After preparing the ark, it rained for 40 days. The entire world was submerged under water. The entire world was devastated as the water covered it for 110 days. How did God renew the world when it was polluted and devastated by water? The wind of the Holy Spirit blew. Some people interpret the wind in Genesis 8:1 as the Holy Spirit. The water of the world cannot be removed witho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Edward interpreted the flood as the blood of Christ. God completely restored the many, deep, wide, and deadly sins of the whole world by applying the gospel of Christ. The pouring of the Holy Spirit clears away the past and creates a new world. The world was made new like the first time.

Third, because the spirit of revival fulfills the first covenant. Noah, who came out of the ark, built a foundation. Worship is evidence that the Spirit of God is burning in one's heart. Prayer, worship, faith, and companionship emerged more powerfully through obedience. God confirmed the covenant he first

made. Some call this the natural covenant. When we keep the first covenant to pour out grace, we will fulfill our original mission. From then on, this world was allowed to enjoy the benefits under natural law until Christ came. After Christ came, this covenant was more clearly completed with the pouring out of the Holy Spirit. Now we have become more blessed people who enjoy special grace amidst general grace.

## 7.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성령 (창 12:1-3) 2010. 2. 7.

노아의 장자 셈족의 에벨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성령 의 은혜가 부여  
졌습니다. 본문에는 그 말이 없으나 그가 받은 언약 내용이 우리 주님 과  
사도들에 의해 성령의 부으심 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마28:19 -20  
갈3:14) 아브라함 에게 부여된 부흥의 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부르심이 증거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친히 부르심으 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 을 따라 시간의 흐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 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신 것 처럼 친히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부르 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가문에서 그를 부르신 것은  
무슨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을 따라 일방 적으로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것 입니다.

둘째, 즉각 응답하고 끝까지 순종한 것이 증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람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지 만 즉각  
응답하였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안정된 도시에서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고 여러 해가 거듭 되고 어려움이 많았어도  
부르심에 항상 예배로 응답했습니 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된 예배자로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셋째, 복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삶이 증거합니 다. 2-3절에 말  
씀하신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중 복의 근원이란

무엇입니까? 물질, 명성, 보호, 능력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자체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구제하고 가르치는 것 이상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세상에 성령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 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재 리 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일락이 이 길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았던 것처럼 육체의 소 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28: 19-20을 묵숨 내대고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 7.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Abraham (Genesis 12:1-3) 2010. 2. 7.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was poured on Noah's eldest son, Abraham, who came from Eber of the Semitic tribe. Although there are no words in the text, the contents of the covenant he received are testified to by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by our Lord and the apostles. (Matthew 28:19 -20 Galatians 3:14) How was the spirit of revival poured out on Abraham revealed?

first. The calling is the evidence. In verse 1, God established a covenant by personally calling Abram. God's plan, which he establishe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save his people in the world, called each person one by one through the flow of time according to the economy. Just as God called Noah and his family during the time of Noah, Jehovah God personally called Abraham individually. The reason he was called from a family that traded idols in Ur of the Chaldees was not because of any merit, but rather according to God's appointed plan, he was unilaterally called to become the father of



faith. “Leave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and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Second, the proof is that you responded immediately and obeyed until the end.

Abram, living in Ur of the Chaldeans, could have made as many excuses as he wanted, but he responded immediately and obeyed to the end. He obeyed the command to go from a stable city to an unknown world, and even though many years passed and many difficulties were encountered, he always responded to the call with worship. This cannot be done with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t is a blessing to be used as a true worshiper.

Third, the life lived for the mission of spreading blessings is evidence. Of the great nation, great name, and promise to be the source of blessing mentioned in verses 2-3, what is the source of blessing? It is more than material things, fame, protection and power. A life led by the Holy Spirit itself is a blessing. Being a source of blessing is more than just providing relief and teaching. It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a life lived for the mission of sharing the Holy Spirit with the world. To do this, you must first become a person of the Holy Spirit. The problem is always myself. This is because there is something within me that hinder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Mainly, the temptation of wealth, worldly concerns, and pleasures block this path.

Just as Abraham lived as a source of blessing, we must not follow the desires of the flesh but bear fruit by following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is is living as a person who protects Matthew 28:19-20 with his life.

## 8. 야곱에게 부여된 성령 (창 32:22-32) 2010. 2. 14

아브라함에게 처음 맺은 은혜언약은 이삭에게 확인되었고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야곱은 도망 나오다가 압박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야곱에게 부으시는 부흥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변화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야곱 위에 부흥의 영이 필요한 이유. 에노스,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부흥의 영은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불처럼, 물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개인에게 붓고 오순절처럼 집단적으로 신약 교회에 부으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내심을 신구약 역사에 뚜렷이 보게 됩니다. 야곱 생애에 그를 거룩케 하신 결정적 변화의 전환점이 오늘 보인 바로 브니엘 사건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변해 야합니까? 1) 탐욕주의 자였기 때문입니다. 밋단 아람에서 재물을 모은 그는 가인 후예와 다를 바 없는 탐욕의 종이었습니다. 아내가 4명(라벡의 일부다처주의)이고 자기가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자기 뜻을 꺾는 희생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2) 또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를 느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탐욕의 껍질을 벗어야겠다는 마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위에 성령이 부어진 증거. 브니엘에서 야곱 위에 성령이 부어진 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1) 29절에 축복을 구할 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성령입니다. 몸은 절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복을 가진 것입니다. 2) 그 다음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은 33:3절에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나가는 책임진 자의 담력이 나타났고 겸손이 나타났습니다. 겸손한 왕의 태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서도 당장 변했습니다.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두려움과 온유함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형태로 부어져서 성화를 시키십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야곱 생애의 거룩한 변화를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경배자가 됩니다.

셋째, 야곱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방법. 1) 고독한 환경이 이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홀로 있었더라. 벧엘에서도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고독은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입니다. 이때야말로 성령의 부흥을 구하는 기회입니다. 2) 맹세 코 구했습니다. 갈망입니다. 씨름하다 위골되어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위하여 늘어지는 갈망이 이 은혜를 받게했습니다. 진돗개의 끈질김처럼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무모한 짓이지만 그에 게 갈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만큼 순수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언약은 교회위에 주어진 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8.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Jacob (Genesis 32:22-32) 2010. 2. 14

The covenant of grace first made to Abraham was confirmed to Isaac and continued to Jacob and Joseph. At God's time, Jacob received grace by running away and wrestling with an angel at the ford of the Jabbok River. I think of this as the spirit of revival poured out on Jacob. This is because God's promise of salvation became concrete through personal change.

First, why the spirit of revival is needed over Jacob. The spirit of revival that came to Enos, Enoch, Noah, and Abraham led the church. At times, He came like fire, like water, or like a dove to accomplish God's will on this earth. We can clearly see in the histor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at special grace is poured on individuals and collectively, like at Pentecost, on the New Testament church, revealing the image of God. The turning point in Jacob's life that sanctified him was the Peniel incident that occurred today. Why should Jacob change? 1) Because he was a greedist. Having amassed wealth in Paddan Aram, he was a slave to greed, no different from the descendants of Cain. His four wives (Lamech's polygamy) and his struggle to survive are exactly like those of Abraham or Isaac. He could not escape the category of using God rather than sacrificing himself by bending his will to God's wishes. 2) Because he relied more on means than on God. He needs pure faith that relies only on God. He has a desire only when he feels a need. He must desire to shed his shell of self-greed and to have a heart that relies entirely on God.

Second, evidence of the Holy Spirit being poured out on Jacob. How do we find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Jacob at Peniel? 1) Verse 29 says that he blessed when he asked for bamboo clothes. That blessing is the Holy Spirit. Although his body was crippled, his heart was blessed. 2) The next pouring of the Holy Spirit appears in verse 33:3. The courage and hum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going out in front of them was evident. This is the attitude of a humble king. When the Holy Spirit comes, it changes you into this kind of person. also changed immediately.

The moment I saw it, I thought I was seeing the face of God and was overwhelmed by its fear and gentleness. Toda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poured on Christ in this form to sanctify Him. The purpose is the same. The Holy Spirit brought about a holy change in Jacob's life. Leaning on the head of the staff and worshipping God come from the heart. Only when the wind of the Holy Spirit blows can one become a worshiper.

Third, how Jacob receive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1) A lonely environment causes us to seek this grace. I was alone. It was like that at Bethel, and it was like that at Laban's house. Loneliness, in other words, is suffering. It is an environment where you are being bullied left and right. This is an opportunity to seek revival from the Holy Spirit. 2) I swear I saved it. It's a craving. Even though I suffered a stomachache while wrestling, I was saved. My longing desire to receive God's grace led me to receive this grace. Like the tenacity of a Jindo dog, I competed with God. It was a reckless thing to do, but he had a longing faith. This is proof that the faith is that pure. The covenant of grace was given to the church and revealed its power to save all mankind.

## 9. 모세에게 부여된 성령 (출3:1-12) 2010. 2.21

모세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말씀을 직접 받은 일이 있는 선지자로서(신34:10)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의 120세 인생에서 첫 40년은 자기를 의지한 시기였고, 둘째 40년은 자기 부인을 위한 연단의 시기였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기였다. 본문은 80세 때의 모세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부름, 방법, 사명과 관계된 모든 일이 성령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낮은 자리에서 개별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80년의 긴 시간에 모세는 인생 실패의 잔을 마신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학살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일을 혈육으로 되는 줄 알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베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가정을 꾸리며 목동으로 살면서 모세는 자아부인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여된 것입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 나타난 여호와와 사자를 보며,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1-2) 그 광경에 끌려 그곳에 다다갈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

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는 거룩을 배웠습니다. 자아가 부인된 마음에 임한 성령은 그를 거룩한 사람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후, 하나님은 먼저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반드시 거룩의 방법으로라야 합니다. 거룩을 상실하면 모든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발 벗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성령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명을 모르다가 성령이 부어진 후에 자기가 무엇해야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애는 성령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 2의 모세입니다.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수하실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일 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하여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모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며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9.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Moses (Exodus 3:1-12) 2010. 2.21

Moses was a prophet who participated in the council of God and received the word (Deuteronomy 34:10), and was a model of Christ. In his 120-year life, the first 40 years were a period of his self-reliance, the second 40 years were a period of refinement for his self-denial, and the last 40 years were a period of total dependence on God alone. The text is about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Moses at the age of 80, enabling him to fulfill his mission. As he carried out his mission to lead Israel across the Red Sea and through the wilderness into Canaan, he received an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Because everything related to his calling, method, and mission was possible only through the Holy Spirit. How was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revealed to Moses?

First, he received an individual calling from a lowly position. For 80 long years, Moses drank the cup of failure in his life. He mastered the science of Egypt and thought that God's work was done through flesh and blood, so he set out to kill a man and run away. It was as if Peter cut off his Malchus' ear with a sword. As he lived as a shepherd and raised a family in the wilderness of Midian for 40 years, Moses learned little by little to deny his self. Because only by denying himself can he take up his cross and carry out his mission. That is why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I saw the angel of Jehovah appearing in the thornbush on Mount Horeb, and heard the call of God coming from within. (1-2) I was drawn to that sight and as I approached there, hearing a voice calling my name was itsel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Yes. The place of failure and despair was the place to experience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Second, he learned holiness. The Holy Spirit, who came to his self-denied heart, taught him to walk the path of a holy man. After calling Moses, God first said, “Take off your shoes.” Because holiness is life and power. Developing and sustaining power and accomplishing God's will must be done in a holy way. This is because if you lose holiness, all your abilities disappear. Therefore, Christians must learn to take off their shoes. This is because only through specific efforts to repent of sin and hate sin can we continue to receive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Third, he realized his mission and remained faithful to it. Moses' mission was to deliver his people from Egypt. Before he received the Holy Spirit, he did not know his mission, but after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on him, he knew what he was to do, and he faithfully performed it. The 40 years of life in the wilderness was a life of complete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Christ is the second Moses. He saves us from all our sins and now leads us to Canaan. Moses' mission in the Exodus is to show the salvation that Christ will accomplish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is is not only the mission of believers and the church, but everything in history is centered on Christ.

Just as Moses was able to do God's work through the Holy Spirit, I hope that you too will ask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receive His grace in order to fulfill the mission of the gospel for yourself.

## 10. 미스바에 부어진 성령(삼상7:1-11) 2010. 2. 28

사사 시대 마지막에는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표가 붙을 정도로 죄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엘가나 제사장의 아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키워 과도기에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과 모세 같은 영권을 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개인체험이 공동체 체험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회개의 성회였습니다. 3절에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지금 돌아오라"고 했고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기랴여아림에 법궤가 머문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무엘은 아스다롯을 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때는 지금, 방법은 전심으로, 방향은 왕이신 여호와께 돌아올 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8-10절에 이스라엘이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믿었고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를 발하여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승리한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집중하면 성령은 친히 일하십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적용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풀고 묶는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5-6) 사무엘도 중보기도하고 백성은 온 종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분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 느헤미야도 모두 금식의 수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장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드린 수고가 계속되는 곳에 언제나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셋째,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기도는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개인 기도가 예배이지만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림은 공동체가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관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린 십자가의 산제사는 넉넉한 효능을 가져왔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부으심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지럽게 하여 불레셋을 패하시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의 다스림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부심은 롬5:5의 체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며 신령한 환희로 은밀히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은혜입니다. (Owen) 우리 교회는 모일 때 마다 회개에 힘쓰므로 에벤에셀의 체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부흥의 영이 충만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0. The Holy Spirit poured out at Mizpah (1 Samuel 7:1-11) 2010. 2. 28

At the end of the period of the judges, confusion reached its peak. When sin reached its peak to the point where he was labeled as evil and obscene, God raised Samuel through Hannah, the wife of the priest Elkanah, and made him the cornerstone of a transitional period. In him we see obedience like Abraham and spiritual authority like Moses. Because not a word from his mouth fell to the ground. The darkness of the period of the judges still continued, but even in the midst of it all, God poured grace upon Israel. This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the Israelites gathered at Mizpah. The personal experience has given way to a community experience. How did the fruit appear?

First, it was a sacred meeting of repentance. Verse 3 says, “If you want to come back, come back now,” and “Come back with all your heart.” It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created an atmosphere of longing for Jehovah during the 20 years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stayed in Kirjathjearim. In it, Samuel told them to get rid of Ashtoreth and return. When the time is now, the way is with all one's heart, and the direction is to return to King Jehovah, he poured out his Holy Spirit. In verses 8-10, Israel believed in the value and power of prayer, and Samuel's prayer was answered. He thundered and defeated them. The Holy Spirit worked in God's war. It is important to be victorious during worship. When a believer focuses on abiding in Christ, the Holy Spirit works Himself. This principle still applies today. If you are bound on earth, you will be bound in heaven. The earth moves the sky. Therefore, repentance to untie and bind is very important.

Second, I devoted myself to prayer. (5-6) Samuel also interceded and the people fasted all day. Sufficient faith to serve only God has arisen. Daniel

Nehemiah also took the trouble of fasting. That's how solemn it is.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lways comes where the effort of giving time and heart to the most valuable work continues. The Holy Spirit comes to places of prayer.

Third, we focused on worship. The prayer that started with the Holy Spirit progressed into worship. Individual prayer is worship, but community worship is the worship of the people of God's kingdom. Samuel's offering of a burnt offering was something the community would worship together. Even if Samuel was in charge, this work took place, and the living sacrifice of the cross where Christ offered himself brought ample efficacy. It is an eternal sacrifice. When we live a life focused on worship,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evitably occurs. God's work was to cause confusion with thunder, defeat the Philistines, erect a monument to Ebenezer, and continue to rule through the Wor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s the experience of Romans 5:5. It is the grace that God's love pours into our hearts, overcomes all fear and sorrow, and secretly gives and takes away with spiritual joy. (Owen) Our church must look forward to Ebenezer's experience by striving for repentance every time it gathers. I hope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the spirit of prosperity and that you will create a new history.

## 11. 다윗에게 일어난 부흥 (삼하6:12-23) 2010. 3. 14

마태는 다윗을 그리스도 족보에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기록했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로마서에서 1100년 전에 다윗은 복음을 안 사람으로 증거했으며 우리 주님 역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시 130:1)로 부른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결과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마22:43)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3개월 모시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집식구들에게 축복한 내용에 서 성령이 그에게 부여된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가 말씀을 중신했다는 사실입니다.(12) 법궤 운반하다가 옷사가 죽는 일로 다윗은 3개월 동안 침묵으로 자성하다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감격하여 기뻐하며 춤을 춘 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에덴, 그리스도, 신자 등으로 설명되는 그 법궤는 말씀 혹은 성령으로 요약됩니다. 성령 모심이 말씀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거기에 성령이 일하시지만 말씀을 경멸하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말씀을 경멸하면 마귀가 역사하여 육체의 정욕을 발동시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소년시절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했고 장년이 된 후 고난을 당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견딜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둘째, 성령의 즐거움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제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 본 다윗이 기뻐 뛰며 춤을 춘 것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성령은 희락을 주십니다. 마리아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의 요점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권자란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되심을 만 천하에 만드시בות히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부강한 애굽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여 심판하신 하나님 마침내 남은 이방인들 속에서 가나안 방언을 하게 하고 그 중앙에 성소를 두게 하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근본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사19:18-20)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축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권이 회복되기에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은 사울과 시므이 그리고 압살롬을 향할 때도 복을 비는 마음으로 채 워져 있었습니다. 비난, 비판, 원망으로 마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긍휼과 착함과 견 그리고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 생애에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백성의 축복, 가족의 축복, 임종의 축복 그 내용이 모두 성령의 부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12:3절의 권위가 실행되어지기 위하여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 **11. Revival happened to David (2 Samuel 6:12-23) March 14, 2010**

Matthew recorded David as a person comparable to Abraham in the genealogy of Christ as “Jesus Christ, descendant of Abraham and David,” and Paul testified in Romans, explaining the core of the gospel, that David was a man who knew the gospel 1,100 years ago, and that we The Lord also explained that David's calling Christ his Lord (Psalm 130:1) was the result of being moved by the Holy Spirit (Matthew 22:43).

It is said that when David heard that God had blessed the house even though the Ark of the Covenant had been kept in the house of Obed-Edom for three months, he danced with such joy that his outer garments fell off when he moved it to Jerusalem. And he shows evidence of the Holy Spirit being poured out on him in his blessings on Israel and his household members.

First, the fact that he centered on the Word. (12) After Uzzah died while transporting the Ark of the Covenant, David reflected in silence for three months and decided to bring the Ark to Jerusalem. The fact that people danced with joy when the Ark of the Covenant was brought in was evidence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e law, which is explained as the word of God, the presence of God, Eden, Christ, believers, etc., is summarized as the Word or the Holy Spirit. This is because attending the Holy Spirit means attending the Word. If you value the Word, the Holy Spirit will work there, but if you despise the Word, you will grieve the Holy Spirit. If you despise the Word, the devil works and activates the lust of the flesh. However, if you love the Wor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ill occur and everything will prosper. The reason David possessed this grace was because he loved the Word from his childhood. He said that when David was a boy, he was after God's heart, and



after he became an adult, when he endured hardships and held on to the word, the Holy Spirit came upon him.

Second, he possessed the joy of the Holy Spirit. The fact that David jumped and danced for joy as he watched the Ark of the Covenant come in is evidence that he was moved by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gives joy. It is like the song of Mary, the song of Hannah, the song of Mary, and the song of Deborah. Their point is that only God is sovereign over salvation. At the end of this world, God will definitely reveal His Lordship to all the world. God, who judged the rich and powerful Egypt by drying up the Nile River, finally said that He would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remaining Gentiles by making them speak the Canaanite dialect, placing a sanctuary in the center, and calling them “my people” (Isaiah 19:18- 20) The Holy Spirit does that work.

Thirdly, the fact is that I prayed for it.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your spiritual realm is restored and you become a person who blesses. Resentment turns into gratitude. Even when David turned to Saul, Shimei, and Absalom, his heart was filled with blessings. It's easy to end with blame, criticism, and resentment. However, the heart of the Holy Spirit is expressed as compassion, goodness, goodness, and blessing. Even though David suffered many hardships during his life, the blessings of the people, the blessings of his family, and the blessings on his deathbed all testify to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Please long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so that the authority of Genesis 12:3 can be put into practice.

솔로몬에게 부여된 성령은 분별하는 지혜와 일반은총의 이해와 공동체 생활의 지혜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지혜 출처 문제를 둘러싸고 논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며 그 지혜가 바로 자신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일천 번제를 드린 사실이 증거합니다. (4) 그 번제는 예배에 집중한 것을 뜻합니다. 기온 산당에서 드린 1천 번제는 1000 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번제단에 1000번을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의식수준을 넘어 정성과 헌신이 뛰어남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무게를 주님께 두는 곳에 일어납니다. 주님의 성전청결은 예배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성전, 성막, 제단은 모두 예배의 상징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냐 강도냐? 기도의 집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후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이것은 천번제 이상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번제로 드리는 것이니 예배의 대상도 바로 알아야 하고 바치는 정성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마음은 다윗의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어릴 때 그것을 보며 자랐기에 다윗의 정직, 성실, 의를 행하는 예배의 삶이 마음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11) (16-28) 기브온의 번제 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자, 그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자기 할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일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심으로 되는 것을 알았기에  
성령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에게 장수 평강  
권력도 모두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친히 일하신 증거가 두 창기의  
다툼을 해결함으로 들어났습니다.

셋째, 일반은총에 대한 지혜가 생겼습니다.(4:29-34) 솔로몬에게 임한  
성령 부심은 일반은총을 아는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3000잡언, 1500수의 노래를 말했고 자연동식물을 연구 하였다고 했습  
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 가야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지혜의 원천을 가진 셈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여이 풍성한  
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12.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Solomon (1 Kings 3:1-15) 2010. 3.7.

The Holy Spirit poured out on Solomon shows us the wisdom of discernment,  
understanding of common grace, and wisdom of community life through  
Proverbs and Ecclesiastes. Although there is debate over the issue of the  
source of that wisdom, Jesus himself acknowledged Solomon's wisdom and  
implied that that wisdom was himself. He is greater than Solomon. How does  
Solomon show evidence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First, the fact that 1,000 burnt offerings were offered proves this. (4)) The burnt offering means focusing on worship. It appears that the 1,000 burnt offerings offered at Gion High School were not offered for 1,000 days, but rather were offered 1,000 times on various burnt offering altars. It means you gave the best. This proves that sincerity and dedication go beyond the level of awarenes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lways occurs where weight is placed on the Lord. The Lord's cleansing of the temple focused on worship. The temple, tabernacle, and altar are all symbolism of worship. Why is it so important? Because God gave them the best treatment.

Worship or robbery? A house of prayer or a den of robbers? It's one of two things. The battle between flesh and spirit is not over yet. Offering a living sacrifice after being saved is the path we must take. This is a worship service offered over a thousand offerings. Since you are offering your own body as a burnt offering, you must know the object of worship and offer the best sincerity. Solomon's heart was a transmission of David's faith. Because I grew up watching it when I was young, David's life of worship of honesty, sincerity, and righteousness was deeply ingrained in my heart.

Second, because it revealed the righteousness of God. (11) (16-28) After the burnt offering in Gibeon, God appeared in a dream and asked for his wish, and he asked for wisdom to discern. This is because he knew what he had to do to establish the righteousness of the kingdom of God. This is because understanding even the deep things of God cannot be done without the Holy Spirit. He knew that the Holy Spirit works, so he sought the wisdom of the Holy Spirit. Longevity, peace, and all power were given to him who sought

God's will. Evidence of the Holy Spirit's personal work was revealed when the dispute between the two prostitutes was resolved.

Third, the wisdom of common grace arose. (4:29-34)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at came upon Solomon was revealed as the wisdom of knowing common grace. He said that wit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he spoke 3,000 proverbs, 1,500 songs, and studied natural flora and fauna. He must return not to nature, but to the Bible. We who serve Jesus, who is greater than Solomon, have the source of wisdom. Because the Holy Spirit exists. Now we must seek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o receive and enjoy this rich wisdom.

### 13. 엘리야의 성령님 (왕상 19:1-9) 2010. 3. 20.

이 시간, 엘리야에게 일어난 세 사건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살핌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첫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 받은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침묵하며 단지 디 셉 사람이란 것만 나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의 사역 은 마치 사사 사역과 비슷합니다.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지 시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3년 6개월 가뭄에 그릇 시냇가 산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은 것도 성령 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연 단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치 옛센과의 일원인 세례요한 을 요단강에서 훈련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 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마6:33절이 적용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르밧 과 부의 가정에 엘리야가 한 일을 특이한 사건으로 말하며 은혜로, 구 원받은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눅4:25-26) 은혜를 받을 때나 은혜 를 받은 후의 관리의 비결은 여전히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원리 였습니다.

둘째, 갈멜산에 내린 불과 소낙비는 성령의 부으심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치적 혼란 중에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 속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떨어진 불과 소낙비는 성령을 상징 한

것입니다. 성령이 원수에게 심판의 불로, 이스라엘에게 치료의 강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것은 단지 제물만을 태워 버림이 아니고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회개의 제 물이 있는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불과 물이 엘리야 승천 후 엘리사에게 갑이나 더한 것은 주님의 승천 후 교 회 위에 부어진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현장에 폭풍과 불처럼 은혜의 강수가 터져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을 개인 가정 생업에 구해야합 니다.

셋째, 그의 말년 사역에 성령의 능력은 더 크게 부어졌습니다.

왕상 20장에 보면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40 주야를 달려 호렘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폭풍 지진 불같은 상징은 떠나가 고 실체가 주어졌습니다. 말년에 성령이 사명을 알게 하신 것입니 다. 그는 마지막 사명을 받아 끝까지 자기 임무를 다하고 승천했습 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그 능력을 구해야합니다. 엘리야처럼 말년 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호렘산 동굴 속 에 은밀한 골방을 찾아 기도해야합니다. 주의 소리를 듣기까지 기 다려야합니다. 이것이 말년에 구할 은혜입니다. 엘리야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천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3. The Holy Spirit of Elijah (1 Kings 19:1-9) March 20, 2010.

At this time, I want to receive grace by observ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three events that happened to Elijah.

Firs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ppeared when he was sent to the widow of Zarephath. The Bible is silent on how Elijah was called, only that he was a Tishbite. His ministry, which suddenly appears and disappears, is similar to the ministry of judges. This is because whenever there was work to do, he mov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It was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at he ate God's miraculous bread and meat while hiding in the mountains near the Cherith River during a drought of three years and six months. It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refine God's messengers to establish God's kingdom. Just as He trained John the Baptist, a member of the Essenes, at the Jordan River, He prepared through suffering.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of the widow of Zarephath, we can clearly see the way the Lord guides us. It was a miracle that applied Matthew 6:33, which the Lord taught. Miracles happen when you do what needs to be done first. This is the flow of the entire Bible. So, Jesus told the widow's family of Zarephath what Elijah had done as an unusual incident and taught them that they had been saved by grace (Luke 4:25-26). The secret to managing when receiving grace or after receiving grace is still His. It was the principle of saving the country first.

Second, the fire and showers that fell on Mount Carmel show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as revealed again during political turmoil and in the confrontation with false prophets. The fire and showers that fell on the altar of Mount Carmel symbolized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appeared



as a fire of judgment to the enemy and as a rain of healing to Israel. It was similar to John's ministry. It was not just the burning of the sacrifice, but the pouring of the Holy Spirit into the hearts of Elijah and the Israelites. This is because the Holy Spirit comes to the place where the offering of repentance is. The fact that fire and water, which symbolize the Holy Spirit, were added to Elisha after Elijah's ascension to heaven was a shadow show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poured on the church after the Lord's ascension to heaven.

A river of grace broke out like a storm and fire at the Pentecost scene in Acts Chapter 2. We must seek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 our individual families and livelihoods.

Thir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to a greater extent during his later years of ministry.

In 1 Kings chapter 20, the man who was seeking death under a broom tree received God's grace and rode for 40 days and nights until he reached Mount Horeb, where he heard the still small voice of God. At that time, symbols such as storm, earthquake, and fire left and substance was given. In his later years, the Holy Spirit made him aware of his mission. He received his final mission, fulfilled his duties to the end, and ascended to heaven. The church of our time must seek that power. Like Elijah, we must listen to the still small voice of the Lord in our later years. To do so, we must find a secret room in the cave of Mount Horeb and pray. We must wait to hear your voice. This is the grace we will seek in our later years. I pray that you, like Elijah, live with the goal of ascending to heaven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14. 엘리사의 성령님 (왕하2:1-18) 2010. 3. 28.

엘리사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이유는 1) 요단강에서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는 점 2) 겔옷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3) 그가 승천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엘리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생애에 성령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갑절의 영감을 받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장자가 받은 못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장자임을 보안임을 보인 것이다. 갑절의 영감이란 엘리야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의 사역을 위한 큰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믿은 후에 항상 점검해야 할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고 생활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용어보다 실재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 실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하여 개인의 요단강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받았나요? 1) 갈망했습니다. 2) 믿었습니다. 3) 인내했습니다. 세 조건을 갖출 때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모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역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의 겔옷이 떨어질 때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처럼 그 옷으로 물을 칠 때 갈라졌고

다른 생도들이 그 능력이 그 위에 머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구체적인 사역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며 선지 생도의 빛을 기적으로 갚아주었으며 물에 빠진 도끼를 기적으로 건지며 해독하는 기적과 나아만 문둥병의 치료와 기근에 처한 사마리아 성을 구한 일은 모두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영감은 신약시대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회가 그 능력으로 사역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절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엘리사이신 그리스도의 역사이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곧 엘리사들의 사역입니다. 높아지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일 보리라.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못할 바가 없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정론에 이 무한한 가능성이 포함된 사실을 잊지 말고 게으름 뱅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절의, 영감을 구해야합니다. 가난할 때 백마 타는 일과 왕이 나귀타는 것도 심령의 가난을 소유하는 것 곧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성령의 강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더 나은 일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시체를 접한 모압 사람의 시신이 살아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효능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죽으심의 효능이 죄 사함과 부활생명의 역사를

가져온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관은 언제 어디서나 창조적이고 개혁적이고 변혁적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살아서 승천하고 죽어도 부활하는 소망이 충만한 이유는 영적 호기심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같이 죽어서도 역사를 일으키는 항상 실재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 14. Elisha's Holy Spirit (2 Kings 2:1-18) March 28, 2010.

The reasons why Elisha is seen as a model of Jesus are 1) that he received double the amount of inspiration at the Jordan River, 2) that he showed evidence of his power through his outer garment, and 3) that he ascended to heaven. When we understand the Holy Spirit at work in Elisha,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t work in Christ. What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Elisha's life?

First, it was revealed that he received a double dose of inspiration. The inspiration of the ablution that Elisha sought at the Jordan River was the pool received by the firstborn, showing that Christ is the security of the firstborn of our salvation. Double inspiration refers to great power for ministry in a more difficult era than that of Elijah, and in short, it refers to the baptism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is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at must always be checked after believing. We must long fo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focus our lives on it. Reality is more important than terms. The reason the Bible considers this reality so important is because our salvation begins, progresses, and is completed by the Holy Spirit. We must go

to the personal Jordan River to receive double inspiration. If you pray there, the Lord will definitely give you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given to those who ask for it. How did Elisha receive it? 1) I longed for it. 2) I believed. 3) I persever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ill occur when three conditions are met. I hope this love overflows with you.

Second, power was revealed in ministry. The double inspiration occurs when Elijah's robe falls off. Like Moses' staff, when he struck the water with his cloth, it split and other cadets noticed that the power rested on it. After that, Elisha showed more specific ministry abilities than Elijah.

She saved the life of the woman's son in Shunem, miraculously paid the debt of a prophet, miraculously rescued her drowning ax and miraculously detoxified it, cured Naaman of leprosy, and saved the city of Samaria from famine, all by the Holy Spirit. This is what you did. The inspiration he received shows the power of the Lord in the New Testament era and shows that the church will work with that power. Every Christian can do God's work only if he or she receives a double dose of the Holy Spirit. In that sense, while the Acts of the Apostles is the history of Christ, Elisha of the New Testament, it is also the ministry of the Christians in it, the Elisha. The exalted Lord promises infinite possibilities through His work in the Holy Spirit.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He promised that He would do greater things than me and that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We must not forget that predestination includes this infinite possibility, and we must not be lazy. We can do all things with the power of the Lord. Therefore, we must seek double inspiration. Riding a white horse and a king

riding a donkey when you are poor are only possible if you possess poverty of spirit, that is, if you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ir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revealed. Elisha became sick and died. But his death brought something better. It is a demonstration of Christ's death and His efficacy that the body of the Moabite who came into contact with His body survived. The efficacy of Christ's death, which brought about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 work of resurrection life, is all accomplished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the believer's view of life is creative, reformative, and transformative anytime and anywhere. The reason why people of the Holy Spirit are filled with the hope of ascending to heaven and being resurrected even after death is because they are overflowing with spiritual curiosity.

I pray that you will live like Elisha, an always-existent person who creates history even after death, a person of spiritual authority who serve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living God of Israel.

## 15. 하나님의 만족 (사53:10-12) 2010. 4.4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제정하여 명령하신 것이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살,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으로 성찬을 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부활 승천)을 내 것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

첫째,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는 자기 멋대로의 삶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빛진 사람의 빛을 대신 갚아버려야 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징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 실제적인 체형을 가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당할 모든 형벌을 그대로 받으시고 대신 그들의 속건제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부는 내어 주시고 아들은 기뻐 순종하고 성령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삼중 사역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병들의 체형, 사람들의 조롱을 그대로 받으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원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11절에 성자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그의 죽음을 보배로운 것으로 평가하여 보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지혜중의 지혜로서 자기 백성이 받을 구원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고전2:2)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반드시 그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체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효능이 나타 납니다. 이미 세례 받은 자는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을 살피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속 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사53:1) 문제는 회개와 더 붙어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가는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베드로가 전한 말대로 제각기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날마 다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다 나가시기를축원합니다.

#### 15. God's Satisfaction (Isaiah 53:10-12) 2010. 4.4

The Eucharist is a ritual that commemorates the death of Christ. This has authority because it was not established by the church, but was established and commanded by the Lord Himself. The bread symbolizes the flesh of Christ, and the grape juice symbolizes the blood of Christ. Taking the Holy



Communion means making the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Jesus ours. So we must understand the meaning of Jesus' death.

Isaiah chapter 53 prophesie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suffering servant.

The Holy Spirit showed this 700 years ago. What is the death of Christ like? In short, it was an event that satisfied God. why?

First, because it was a substitutionary death. We each went our own way, and God put the sins of all of us upon him.

Living life as you please is the beginning of sin. Salvation is turning from self-centeredness to God-centeredness. And this salvation is very real. Just as we must pay the debt of a debtor, Christ actually suffered and died in our place because of our sorrows, our faults, our punishments, and our sins. Just as the soldiers inflicted physical punishment on Jesus, Christ took all the punishment that His people would have suffered and became their trespass offering instead.

Second, Christ's death was a three-fold work in which the Father gave himself up, the Son joyfully obeyed, and the Holy Spirit faithfully carried out the work.

It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overall work of the Trinity. He voluntarily suffered the soldiers' physical appearance and the people's ridicule to save us. Therefore, it was an event that satisfied the Trinity. Verse 11 says that the Son will be satisfied with the labor of his soul. That is why the Father evaluated his death as precious and called it precious blood. This is a miracle of miracles, a wisdom of wisdom, and has become the source of salvation for his

people. (1 Corinthians 2:2) So resurrection and life can become experiential only after passing through his death.

Third, its efficacy is revealed to those who believe in the death of Christ and repent. Those who have already been baptized have participated in salvation. Yet, we fall again. Now, when we examine ourselves and accept the merits of Christ's death as our own through faith, the Holy Spirit works within us with the power of resurrection (Isaiah 53:1). The problem is how to go to a plac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th repentance. there is. The revival of the early church occurred when each person repented and received forgiveness of their sins, as Peter preached, and received the Holy Spirit as a gift. The Holy Spirit enables us to accept the death of Christ individually, becom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transform us daily to reflect the image of Christ. I hope you all go there.

## 16. 이사야에게 임한 부활의 영 (사6:1-18) 2010. 4. 4.

본문에서 모세처럼 이사야도 소명을 받는데 성부는 부르시고(8) 성자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은 보이시고 깨닫게하시고,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임하신 부활의 영은 우리들 속에서도 부활의 강력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1절에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했습니다. 눈을 열어 보좌를 보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눈을 떠 그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때 그는 보좌에 계신 분 앞에 스람들이 거룩하다고 찬송하는 것, 성전 문지방의 터의 진동, 그리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찬 현상을 보았습니다.(2-3) 성령 하나님께서 낙심 속에 있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섬김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신령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생활 중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위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갈2:20, 5:24, 고전2:2, 빌3:12)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을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나의 중심이며 목표이며 능력임을 알아야 하고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구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본 이사야는 자신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 (5) 그는 화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5) 그 때 한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 그의 입에 대었더니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6-7)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숯불이 닿자 죄가 사하여진 것은 다른 곳에 나온 샘물, 젖물과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700년 후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이 이사야에게 적용되어 모든 죄를 청산한 것입니다. 그 효능을 성령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죽음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 죽음이 적용됨으로 처리되었고 지금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성령으로 적용되어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 부활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며 부르셨습니다. 이 초청에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부활의 강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앞으로 이 생명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순교하기 까지 그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열방의 구원을 내다보고 복음을 외친 선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성령이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16. The Spirit of Resurrection Comes to Isaiah (Isaiah 6:1-18) 2010. 4. 4.

In the text, Isaiah, like Moses, receives a calling. The Father calls (8), the Son appears throug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shows, makes us understand, and makes us respond. The Spirit of resurrection that came to the prophet also works within us with the power of resurrection. What did the Holy Spirit do for Isaiah?

First, he caused us to see the Lord seated on the throne. Verse 1 says,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sitting on a throne, high and exalted,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It is the Holy Spirit who opened our eyes and allowed us to see the throne. Open our eyes with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At that time, he saw the people on the throne praising him as holy,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threshold shaking, and smoke filling the temple. (2-3) God the Holy Spirit. God opened the eyes of this discouraged person to see the heavenly service of worship to God and to participate in its glory, and through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he believer saw the meaning of the cross, which is the center of all life. In order to know, your eyes must be opened by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Galatians 2:20, 5:24, 1 Corinthians 2:2, Philippians 3:12). You must know that your affections and desires died on the cross, and Christ and his cross are your center. You must know that it is your goal and ability, and finally realize that carrying the cross of the Lord is the greatest happiness.

Second, salvation was applied specifically. When Isaiah saw the Lord sitting on the throne of heaven, his true self was revealed. “Woe is me, for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dwell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5) He felt the woe coming upon him.(5) He Then a seraphim took a burning charcoal from the

altar and touched it to his mouth, and his sins were forgiven. (6-7) What does this mean? The forgiveness of sins upon contact with charcoal fire is like spring water or lye water that came from somewhere else, and points to the death of Christ. This is a concrete application of the salvation of Jesus Christ, which will be completed 700 years later. Death on the cross applied to Isaiah and wiped out all his sins. The Holy Spirit revealed its effectiveness. Before the death of Christ, the sins of God's people were dealt with through the application of Christ's death, and now the death of the Lord who died 2,000 years ago is applied by the Holy Spirit to provide forgiveness of sins.

Third, God allowed us to participate in the resurrection. To Isaiah, whose sin problem had been resolved, God called to him, "Who will go for us on a mission?" To this invitation, the Holy Spirit gave him a heart to respond, "Here I am; send me." In the Resurrection The power of resurrection works on those who live with the goal of living for the glory of God no matter what they eat, drink, or do. Those who have received forgiveness of sins are those who have tasted the life of resurrection and will manifest this life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Isaiah lived as a prophet who preached the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predicted the salvation of the nations, and preached the gospel throughout his life.

## 17. 예레미야에게 임한 성령(렘33:1-26) 2010. 4.11.

예레미야는 그의 생애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았 습니다 밀이란 성령 부으심의 부흥을 기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 님 나라의 부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 나님과 의 군신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새 언약의 내용을 본 것입니 다. 그 때 성령은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게하셨습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 을 만들어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1)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가리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려 구원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민인이 나를 둘러 친다할 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연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믿기 때 문입니다. 2) 일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 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예레미야는 협력하여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매국 노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 다. 3)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이십니 다. 모든 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자는 어두움 속에 사는 사 람입니다. 성령으로 눈이 여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세계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웅덩이 감옥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주권자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며 개인 대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돌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 앞에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육신의 음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문제 즉, 감옥생활, 강박한 마음을 향한 말씀사역, 목숨의 위태로움 그리고 포로로 잡힌 백성들의 장래 등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혼 육체 가정 사업 관계 등등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난관 속에 있는 지금이 지경을 넓힐 때입니다.

세째, 기이한 응답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트고 비밀한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규출에서 시작하여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새언약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시나산, 여호수아시대를 따라 전수된 은혜언약이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기도 응답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의 형상이 보여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기도 끈질긴 기도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 찬함 口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매국노란 소리를 들으면서 논물과 통곡으로 살다가 훗날 바벨론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되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황금고리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연약이 새 언약의 강함으로 나타난다고 한대로 지금 우리는 그가 기도하고 보았던 그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안에서 누리고있는 것입니다.

17. The Holy Spirit came upon Jeremiah (Jeremiah 33:1-26) 2010. 4.11.

Jeremiah saw something great and mysterious in his life. The wheat was an event that promised the prosperity of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He saw the revival of the kingdom of God. We have seen the contents of the new covenant in which God's law will be written in our hearts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will be completely realized. What did the Holy Spirit do through Jeremiah at that time?

First, it helped me come to know God. Verse 2 reveals the Lord who does things, the Lord who creates and accomplishes them, the God whose name is Jehovah. 1) God who plans things – refers to God's decrees and predestination. We cannot help but be shaken when we know that God knew and predestined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that we were called and saved. Even when low-income people surround me, I can feel safe in God because I believe in God's decree. 2) God carries out and accomplishes things - and God Himself carries out His plans. This is called providence. It means that God rules and leads. Jeremiah, who fell into the pit, saw God working together to accomplish things. Even though he was told that he was a traitor, he received God's providence as is. 3) Sovereign God - God is the sovereign of all things. Those who do not acknowledge the Lord over all things are those who live in darkness. Opened by the Holy Spirit, the prophet came to

know God. When you stand before God, you cannot be afraid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Second, he took us out into the world of prayer. God invited him into the world of prayer. It means crying out from the prison of the puddle.

What is prayer? It is a calling to the sovereign God, speaking from person to person, and personal fellowship through faith. Even if there is nothing visible to the eye or sound to the ear, we are asking for it now, before the person of God. What do you mean? It is a concrete request through the voice of the flesh. Jeremiah's own problems, such as life in prison, ministry of the word to strong hearts, the danger of his life, and the future of the captives, are saved. In short, pray for the Old Testament church. We can come to the Lord and pray that He will use all our personal, soul, body, family, business, relationship, etc. problems for His glory. Please expand your world of prayer. Now is the time to expand our horizons amidst difficulties.

Third, we experienced a strange answer. What's the secret? It points to the hope of the new covenant, which begins with individual discipline and speaks of salvation from sin. It is the hope that the covenant of grace handed down through the times of Abraham, Mt. Sinai, and Joshua will be fulfilled. The rich answer to prayer prepared by the Lord is to become a person who displays the fruit and gifts of the Holy Spirit and shows the image of God. I believe that we must pray a lot and persistently in order to restore the image of God. Let us pray to protect the truth. It is said that Yereimiya lived in difficult times and was called a traitor, so he lived by plowing and wailing, and was later martyred in Babylon. However, the fruit of grace he received was fulfilled in Christ and became a golden link connect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s it is said that the weakness of the old covenant appears in the strength of the new covenant, we are now enjoying in Christ the abundant grace that he prayed for and saw.

## 18. 아모스가 본 소망 (암9:11-15) 2010. 5.30.

아모스는 남쪽 웃시아와 북쪽 여로보암 2세 때에 일한 오세아 와 같은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비록 아 흠 장이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구약 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부차이가 극심한 때에 교회가 할 일은 공홀이고 기 준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공의를 구하는 일로 곧 하나님의 성품인 상고의향이 순간이 것인지, 하는 일입니다. 11절에 아모스를 첫째,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윗의 무너 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서 자유를 얻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 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했고 수로보니게 여인 과 소경 바디메오가 부른 다윗 자손의 호칭을 그대로 받으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분임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윗 왕국처럼 꺾박을 당할 때 흩어지고 자체 내의 죄 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진 성령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그 나라 왕의 은혜를 받아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활동 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물 같은 공의와 불같은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만민 구원의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 백성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유대 백성에게 다른 민족이 합류되는 것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습니다.

260개국에 흩어진 자기 백성의 구원의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교와 삶이 되기 전에는 그 어떤 나라나 개인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모스는 드 고아의 가난한 목자였지만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소망으로 중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풍성한 생명을

절에 포도원을 세우며 단 포도주를 주시며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복자하다 연이 약식을 가리 마나 위대한 에 가일, 구조시 이

참패를 보세요. 더 무서운 것은 다윗 자신 속에 있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는 탐욕이었습니다. 민족적 다윗 왕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참 다윗 왕국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인 교회는 견고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 살아납니다.

아모스는 성령으로 다윗장막의 재건의 실질적인 소망인 교회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영광을 보고있습니다.

18. The hope that Amos saw (Am 9:11-15) 2010. 5.30.

Amos was a prophet who was active in the same era as Uzziah in the south and Oshea, who worked during the reign of Jeroboam II in the north.

Although the message he delivered is chapter Ahom, it is known as one of the most theologically interesting Old Testament books. In a time whe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extreme, the church's job is to show mercy, and in an age where standards have been lost, it is to seek justice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will to appeal, which is God's character, is temporary. In verse 11, Amos' first priority i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this earth. The raising of David's fallen tent is not limited to Israel's liberation from Babylon and national restoration, but refers to the kingdom of God established by Christ, who will come in the New Testament, as king. Therefore, Matthew said that Christ came as the descendant of David, and by accepting the title of the descendant of David as called by the Syrophoenician woman and the blind Bartimaeus, he not only showed that he was the one who built the fallen tabernacle of David, but actually became the god of God on this earth. He founded the country.

That kingdom is not a weak kingdom that scatters when persecuted and betrays God due to its own sins, like David's kingdom, but is a kingdom of the Holy Spirit filled with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As citizens of that country, we must receive the grace of the king of that country and strive for two activities: justice and love. We are the people who bring about events of justice like water and love like fire. This is what happens to everyone who receives the Holy Spirit.

Second, it is to become the subject of salvation for all people. Verse 12 says that He will become the source of salvation for the remnant of Edong and the people of all nations. This is a repetition of the fulfillment of Abraham's blessing. Some say it is a joining of other nations to the Jewish people, but this is the nations seeing the glory of the Lord in Christ. It is like the prophecy of Isaiah and Jeremiah. The only source of salvation for his people scattered

across 260 countries is Christ. Therefore, no country or individual has hope until they become Christ-centered in their mission and life. Amos was a poor shepherd in Goa, but he was filled with hope of doing great work through him. This is the cup prepared in Christ. Third, abundant life

He built a vineyard at the temple, gave sweet wine, and said it would never be plucked again.

Blessed is the kite, the great mana, the rescue city.

Look at the crushing defeat. What was even more frightening was David's greed, which led him to commit the sins of murder and adultery. The national Davidic kingdom was a failure. The church, the kingdom of the gospel of Christ, the true Davidic kingdom, is solid. It is said that no one will snatch it out of his Father's hand, and Satan cannot touch it. This was not always complete. He is alive only by returning to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Amos saw the glory of the church, which was the practical hope of rebuilding the Tabernacle of David. We too are seeing that glory now.

## 19. 요엘이 본 오순절 사건(욥2:28-32) 2010. 5.23.

요엘은 12 소선지서 중 두 번째 언급된 선지서로서 개혁의 왕, 요시아 시대에 활약한 유다 말기의 북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나타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요엘은 어려운 정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을 통해 본 것은 유다의 회복보다 더 놀라운 세계 곧, 900년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나라가 온 세상에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이 본 오순절 사건은 어떤 것인지 그 예언을 통해 알아보시다. 첫째, 만민에게 성령 부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내 영"이란 하 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말하면서 갑자기 내 영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요엘을 통해 하 나님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당대 요엘이 예언할 당시에 주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만민 속에서 하 나님의 성품을 보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할 수 없는 것을 야시고 새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일 때 성령을 구해야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을 받은 경험이 일어납니다.

비가 토지를 적시어 열매를 내듯이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언하게 합니다. 꿈 과 이상을 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르던 사람이 성령 받은 후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자기와 세 계를 향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재능이 모두 복음과 관련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둘째, 심판의 이적을 베푸는 입니 다. 불, 피, 연기기둥이 솟 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심판입니 다. 구원도 동시에 일어나지만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 킵니다. 생수의 강과 불 강이 흐르는 이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대를 감당할 능력이 일어납니 다. (엡5:18-20) 성령은 고난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 다 절망 속에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 가 오는 것은 성령이 그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입니 다.

셋째,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 날 구원을 말일이라고 했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이란 것입니다. 그리 스도 안에 피할 자만 구원 받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 다. 요엘이 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 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시대에 성령을 사모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열심이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 그렇습니 다. 요엘 의 교훈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은 즉시 회복의 역 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9. The Pentecost incident seen by Joel (Joel 2:28-32) May 23, 2010.

Joel, the second prophet mentioned among the 12 Minor Prophets, was a prophet of the Northern Kingdom in the late Judah who was active during the

reign of Josiah, the king of reform. Joel, who appeared between Hosea and Amos and fulfilled the role of a prophet, received revelation while fearing the Lord in a difficult situation. What he saw through the Holy Spirit was a world more amazing than the restoration of Judah: the coming of Christ, which would occur 900 years later, and the spread of that kingdom throughout the world.

Let's find out through the prophecy what kind of Pentecost event Joel saw. first. He poured out the Holy Spirit on all people. "My spirit" refers to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The reason why Joel suddenly used the word "my spirit" while speaking from the word of Jehovah means that God spoke through Joel and poured it out on all people. Joel of the time At the time of this prophecy, there were many enemies around him, but God's will to see His character among all people did not change and He poured out the Holy Spirit to fulfill the new covenant through Israel. When you do this, you must seek the Holy Spirit and long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you will have a personal experience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Just as rain wets the land and produces fruit, when the Word falls, it bears fruit, and when the Holy Spirit comes, evidence of receiving the Holy Spirit appears. It makes you prophesy. I see dreams and visions. A person who did not know the purpose of his life before receiving the Holy Spirit comes to know the purpose after receiving the Holy Spirit. It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It is a dream toward a self and a world filled with God's character. Money, fame, and talent are all dreams related to the gospel. That's what happens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Second, he performs miracles of judgment. It was said that fire, blood, and a plume of smoke would rise. It is a symbol of God's presence, but here it is judgment. Salvation occurs at the same time, but it also indicates that the work of judgment occurs. At this time when rivers of living water and rivers of fire flow, we must be alert, sober, and humbly approach God and receive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At this time, the ability to endure the times arises. (Ephesians 5:18-20) The Holy Spirit accomplishes new work in suffering. The reason good results inevitably come despite despair is because the Holy Spirit creates the work.

Third, the salvation of the remnant will occur. The salvation that will occur after that is called the last days. This is eschatological salvation. This means that only those who take refuge in Christ are actively saved. An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I hope you look to the kingdom of God that Joel saw and become saints who humbly follow the Lord. In this age when the Holy Spirit is poured out on all people, God commanded us to long for the Holy Spirit. The reason there is no zeal is becaus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as stopped. Like Joel's teachings, when you break your heart and go out in repentance, I hope you repent in your own heart, believing that the Lord will immediately accomplish the work of restoration.

## 20. 오바다가 받은 묵시 (욥 1:1-21) 2010. 6. 6

이스라엘이 에돔의 기고만장한 교만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위기에  
오바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담대히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시온의 회복을 내다보았을 뿐 아니라, 장차  
신약에 나타날 만국에 흠어진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바다가 본 구원이 어떠했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자 주 받은  
메시지는 죄의 은 사망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 를 불의로  
만들어 불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 위에 머 물려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변해도 이 원리를 벗어나 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 판은 누구에게나  
어디나 언제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1) 교만이었 습니다.(3-4) 좋은 집짓고  
높은 자리, 안정된 피난처에 살면서 절대 안전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지리라고 생각했습니 다. 이것은 바벨론의  
죄악이었습니다. 기고만장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는 교만의  
독이 마음을 사로잡아 스스로 심판의 길을 자 초한 것입니다. 2) 다음은  
탐욕이었습니다. 교만은 탐욕의 친구로서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6절에 에돔은 탐욕 때문에 망한다고 했 는데 탐욕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이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매로서  
하나님의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 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합니 다.(9) 시편 1편에서 왜 말씀을

묵상함이 복이라 합니까? 우상공장 인 우리 마음은 진리를 접할 때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긍휼을 전했습니다.(13-16) 에돔의 죄가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죽든 말든 조금도 긍휼을 베풀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은 죄악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숨은 일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어야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셋째, 그는 시온의 소망을 전했습니다.(17-21) 오바댜가 본 계시는 바울이 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돌아오는 백성을 본 것입니다. 그 백성이 에돔을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복음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돔에서 죄를 처단하여 의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 속에 남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같이 보인 것입니다. 에돔의 남은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열방을 향해 긍휼사역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 The vision Obadiah received (Ob 1:1-21) 2010. 6. 6

At a time when Israel was being harassed by Edom's arrogant arrogance, Obadia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oldly prophesied the destruction

of Edom, and even in the midst of the chaos, he foresaw the restoration of Zion that God would provide. God's people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nations who would appear in the New Testament in the future. I looked forward to salvation. I would like to think about what salvation Obadiah saw.

First, I saw the righteousness of God that judges sin. The message the prophets often received was the truth that the silver lining of sin is death. Those who turn the righteousness of God into unrighteousness and lead an ungodly life will have wrath upon them. No matter how much the world develops and changes, it cannot escape this principle. As Paul said in Romans, God's judgment on sin is a truth that applies to everyone, everywhere, and at all times. Why was Edom judged? What was their sin? 1) It was pride. (3-4) They insisted on absolute safety by building nice houses, living in high places, and stable shelters. He thought he would be exalted to the throne of God. This was Babylon's sin. The poison of arrogance and pride that they would be higher than God took possession of their hearts, and they brought upon themselves the path of judgment. 2) Next was greed. Pride is the friend of greed and always goes hand in hand. Verse 6 says that Edom will fall because of greed, and greed is idolatry. In fact, this sin is the fruit of a heart that does not fear God and neglects God's birthright. So, Hebrews calls Esau a profane man. (9) Why does Psalm 1 say meditating on the Word is a blessing? This is because our hearts, which are idol factories, can only win when we encounter the truth.

Second, he preached mercy. (13-16) Edom's sins were mentioned again. It is indifference to one's neighbors. I did not know that Israel would show the slightest mercy regardless of whether they died or not. This is a terrible sin. It

is a sin of not carrying out one's duty. In this world, we receive help from hidden workers. But I don't even know who they are. Even in our religious life, there are times when we do not know. You must be able to help others. Those who do not have mercy and mercy will face a terrible judgment. Mercy overcomes judgment.

Third, he preached the hope of Zion. (17-21) The revelation Obadiah saw was the same as what Paul saw. I saw the people returning to Zion. The people will judge Edom. This was not accomplished entirely in Israel's history. I saw the glory of the gospel fulfilled in Christ. In Isaiah chapter 63, there is a man coming from Edom dressed in scarlet clothing. Who is he? It is Jesus Christ. The fact that God punished sin and established righteousness in Edom also showed the work of saving His people who remained there. The remaining people of Edom will be saved. I pray that He will abandon His foolish actions and focus on His ministry of mercy toward the nations.

## 21. 나훔 선지자의 하나님 (나훔1:1-15) 2010. 6. 20.

니느웨는 북 이스라엘을 잡아간 앗수르의 수도로서 100년 전 요나의 전도로 온 백성이 회개한 일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이 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은혜는 소낙비처럼 잠깐이었고 니느웨는 강포와 살인과 마술과 간음(4) 그리고 방탕의 죄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까지 올랐던 것을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의 샘플입니다. 똑같은 경고를 또 받았는데 이제는 회개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때 부름 받아 일한 나훔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 습니까?

첫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부흥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나라가 떠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은혜를 입은 니느웨가 맘몬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때 질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질투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사람이 찬양을 받고, 과학이 예찬을 받는 것으로 멎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훔 선지자의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2) 곧이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질투의 하나  
님은 회개치 않을 때 보복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의를 만족시켜  
야하기 때문에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니 정말  
하나님은 여러 천연재해(1:3-5) 기근, 전쟁(2:11-13), 위험(12-19)으  
로 갚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니느웨가 불타버립니다. 3-6절에 불처 럼  
쏟아지니라고 한대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귀하게 1거의 한 지지하나야 전이 싸니다. 우리를 이

이 의를 사람의 의로 대치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용사 이신  
하나님을 따라 의를 위해 목숨을 내 싸움이 일어나야할 것 입니다.

셋째,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7) 질투,, 보복, 진노의 하나님 은  
자기 백성을 위해 살 길을 준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는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7) 심판하면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언 약을  
기억하십니다.(1:15)\_22에 보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여 절기 를 지키는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면서도 회개하 고 돌이키면 살  
길을 주시는 피난처이십니다.

니느웨의 배은망덕의 죄를 쉽게 범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를 모든 일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 은혜위에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21. God of Prophet Nahum (Nahum 1:1-15) 2010. 6. 20.

Nineveh was the capital of Assyria, which captured northern Israel. It was a  
country where the entire people repented 100 years ago through Jonah's

preaching. At that time,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for the salvation of 120,000 people who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left and right. After that, the grace was as brief as a shower of rain, and Nineveh was filled with the sins of violence, murder, witchcraft, adultery (4), and debauchery, and rose to the level of God's judgment. This is a sample of 'those who received grace in vain'. I received the same warning again, but now I didn't even have the strength to repent. What kind of God did Nahum, who was called to work at that time, meet?

First, God is jealous. The word jealous God in verse 2 refers to his passionate love for his people. When a country that received the grace of revival and knew God's love leaves, God appears as a jealous person. This love was revealed in the form of jealousy when not only Israel, but also Nineveh, which had received grace, left God by serving Mammon. Even in our day and age, we must be able to see God appearing as a jealous person. Therefore, the church must live with holy jealousy toward this world in its heart. Our age, where people are praised and science is praised while ignoring God's grace, is bound to be the target of God's judgment. What kind of people should we be at this time? We must have a holy jealousy to convey the strong message of Prophet Nahum.

Second, he appears as a vengeful God. (2) Immediately after, the vengeful and wrathful God is repeated three times. The jealous God takes revenge when people do not repent. He appears as a God who rewards because righteousness must be satisfied. According to the text, God has indeed rewarded us with various natural disasters (1:3-5), famine, war (2:11-13), and danger (12-19).

At the end, Nineveh burns. As verses 3-6 say, it poured down like fire, it became a sea of fire due to the hands of people.

Preciously, it is cheap to give almost one support. us

They were judged because they replaced this righteousness with human righteousness. We must follow God, the warrior, and risk our lives for righteousness.

Third, God is our refuge. (7) The God of jealousy, revenge, and wrath is a God of love who has prepared a way to live for his people. He is a stronghold in the day of trouble. (7) Even as he judges, he remembers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1:15) \_22 shows that he restores Jacob's glory and gives him a day to celebrate his feasts. He is a refuge that judges the nations but gives them a way to live if they repent and turn back.

We who easily commit the sin of Nineveh's ingratitude should return to Christ, serve him as Lord over all, and enjoy grace upon grace.

## 22.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 (미4:1-5) 2010. 6. 13

남북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한 선지자, 미가는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5:2)와 구원의 범 세계성(7:12)을 보여줍니다. 그는 구원에 관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첫째, 종말에 여호와와 산에 몰려오는 일을 보았습니다. 1절에 나온 "끝날"이란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

니까?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은 만민이 몰려오는 것보다 외부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해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미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700년 전에 바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산은 구원의 산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에 나온 구원의 경지는 미가가 보았던 세계였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죄가 청산되는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장로들처럼 그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교회의 넉넉한 승리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 분이 주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 권위가 회복되는 날을 보았습니다. 여기 "도"란 말 씩입니다. "율법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시대" 곧, 그리스도의 은혜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율법을 모두 천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그 때를 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인 의와 인과 신, 그리고 공 의, 인자, 겸손으로 가득 찬 하나님 형상이 나타는 그 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넉넉한 승리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3-4절에서 미가는 기이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1) 전쟁이 평화로 바뀌어지며 2)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평강을 즐기는 일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평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맛을 몰랐다가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특히 무화과나무 아래서 약속된 풍성한 생명은 지금 예수 안에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와보라고 하십니다. 그 풍성한 안식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2. Let us climb the mountain of the Lord (Micah 4:1-5) June 13, 2010

Micah, the prophet who foretold the future of North and South Israel, shows the birthplace of Christ (5:2) and the global nature of salvation (7:12). What did he predict about salvation?

First, he saw the coming to the mountain of the Lord at the end of time. "The end of days" in verse 1 refers to the New Testament era when Christ came.

Why is that so?

Do you? During Micah's time, Israel faced external threats rather than an influx of people. Even after returning from Babylon, Israel failed nationally. As Micah prophesied, their sins were forgiven and they never left God's embrace again. Micah looked at Christ's salvation 700 years ago. It means that he is gathered to Christ. Therefore, the mountain of Jehovah refers to the mountain of salvation, that is, Christ. The state of salvation mentioned in Romans was the world that Micah saw.

In it, we saw complete salvation, with all sins being wiped away, achieved in Christ. Like the elders who met Jehovah on Mount Sinai, we saw the ample victory of the church, eating food and rejoicing before Him. Come to Christ and enjoy the glorious freedom He has given you.

Second, I saw the day when the authority of the Word was restored. Here, the word “Tao” is used. “The age when the law comes out of Zion and Jerusalem,” that is, the age of grace of Christ, is coming. At that time, Israel and Judah both treated the law with contempt. Because of that, my relationship with God was disrupted. Even though I prayed, God did not listen. After that, we saw a time when a powerful authority appeared an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ere fulfilled for us in the gospel. In the Holy Spirit, I saw the day when the image of God, filled with righteousness, humanity, and spirit, as well as justice, mercy, and humility, which are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ppears. This is what happens to those who are centered on the Word. This is exactly what we saw in the book of Romans: the salvation of ample victory.

Third, I saw salvation that allows me to enjoy the peace of the Holy Spirit. In verses 3-4, Micah saw a strange fact. 1) War is transformed into peace, and 2) It is about sitting under a fig tree and enjoying peace. Nathanael waited for the

peace of the Messiah under the fig tree. Before meeting Christ, we did not know its taste, but after Christ came, we received the promise that we would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He saw lions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The authority of the word coming from Him is established, and especially the abundant life promised under the fig tree is now all prepared in Jesus. He asks me to come. I pray that you live in that abundant rest.

### 23.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합3:1-19) 2010. 6. 27.

오늘 본문은 갈등에 대한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 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2:12)"는 응답을 받은 그가 "시기도 곳에 맞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강림의 약속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과 믿음의 삶을 자 세하게 설명하는 계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노래라 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요?

첫째, 말씀을 듣고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계시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비를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의 뜻을 따른 기도를 하 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부흥(renewal)'은 갱신, 개혁, 회복을 가 리키며 주의 일이란 갈대아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우뚝 서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이상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 험적으로 아는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3절'세계') 이것은 바로 신 약시대 곧 은혜시대를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속에서 기이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 다. 무엇보다 알지 못한 세계를 보았고 믿음의 삶에 숨겨있는 보화 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탄식은 간구로, 간구는 찬양으로, 찬양은 부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용사처럼 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첫째,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의를 무시한 형통은 마침내 심판받습니다. 12-13절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며 밟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의를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의의 나라를 만드시는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란 떨어 도 하나님이 그 의를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뜻)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다음 응답은,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경, 결과, 열매, 업적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에 두는 삶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복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묵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회 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골자입니다.

23. Prophet Habakkuk's prayer (Habakkuk 3:1-19) June 27, 2010.

Today's text shows the prayers of Prophet Habakkuk, who received an answer to conflict. After receiving the answer that "the earth is full of the glory of the

Lord, just as the waters cover the sea" (2:12), he "offered a prayer tailored to the right place. More than asking for anything, that prayer promised the coming of God. It is expressed as a revelation that explains in detail the content of gratitude and praise and the life of faith. So what did he pray for and what response did he receive in verse 19?

First, he began to pray after hearing the word. He prayed in verse 2, "O Lord, I have heard your report and am amazed. Lord, please restore your work within these few years. Make it known within these few years." When we pray, we must pray according to revelation. When you believe in His promise and pray, He will answer you. Just as Elijah prayed on Mount Carmel, believing in God's promise to give rain, God is pleased with prayers that follow the Lord's will. Here, 'revival' refers to renewal, reform, and restoration, and the work of the Lord does not refer to the destruction of Chaldea and the rise of Israel as a nation, but to events beyond that. This is to create an era in which the world is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glory of God is experientially known through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Verse 3, 'World') This is in consideration of the New Testament Age, or the Age of Grace.

Second, Prophet Habakkuk experienced strange grace in prayer. Above all, he saw a world unknown to him and discovered the treasures hidden in the life of faith. His laments were transformed into supplications, supplications into praise, and praises into blessings. He saw God come down and fight like a warrior.

Third, what response did he receive? First, the fact is that the wicked will be judged. This means that God's righteousness will shine like the stars in the

firmament. Prosperity that ignores righteousness will finally be judged. He says in verses 12-13 that He will strike His head, expose His foundations to the very bottom, and tread upon Him. This means that God Himself will seek His own righteousness. Why does the book of Romans treat the sins of Gentiles and Jews so harshly? The will to create a kingdom of righteousness was revealed. Even if the Jews make such a fuss, God will find their righteousness. Therefore, we must regard God's righteousness (will) as life. The next answer is that the righteous will be saved. He provided concrete solutions to real-life concerns. At that time, God said that a life of faith means rejoicing only in God. I interpreted it as a life that is not based on environment, results, fruits, or achievements, but is based solely on union with God.

What is blessing, what is prayer, what is meditation, and what is the blessing of restoration of God's image? This is achieving personal union with God. This is the gist of a life of faith.

## 24.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 (습3:14-20) 2010. 7. 4.

주전 613년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온 나라에 개혁의 바람이 부는 때에 일한 스바냐는 나훔, 하박국과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의 계시의 주제인 "그 날에 일어날 일"에 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이 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사실 곧,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기쁨을 예언했습니다.(3:15)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14절을 보면 그 날에 주시는 기쁨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감격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인 시편 126편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꾸는 것 같고 입술에 찬양이 찼다고 했습니다.

70년 포로생활에서 자유 없이 살던 민족이 돌아오는 것도 기쁨이 된다면 죄 가운데서 건 받아 살아난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날에는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의 축제, 최고의 기쁨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능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 시온의 날에 행하시는데 구원은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여 기

전능자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이 전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바냐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바라보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을 믿고 그 분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이단의 문제는 믿음의 근거를 행위에 두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셋째. 창대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18-20절에 모으시고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스바냐가 받은 계시는 천하 만민가운데 명성과 칭찬이라 하였는데 그들이 민족적인 명성회복으로 이해한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떨어져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고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본 세상 속에서의 창대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골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24. People who are God's delight (Zeph 3:14-20) July 4, 2010

Zephaniah, who worked in 613 B.C. when King Josiah discovered the Book of the Law in the temple and brought about a wind of reform throughout the country, was a prophet of the same era as Nahum and Habakkuk. Our interest is in the subject of his revelation: "what will happen in that day." Zephaniah "focused on the kingdom of God and prophesied not only that Israel would become a people pleasing to God, but even more, that is, the joy of redemption achieved in Christ in the New Testament. (3:15) Abundant grace comes from Christ. What kind of promise are you making?

First, it is a promise that gives the greatest joy. Verse 14 says that the joy given on that day is a joy that makes one have no choice but to sing and rejoice with one's whole heart. In short, it refers to the thrill of salvation. In Psalm 126, the confession of those who returned from Babylon, it is said that when He returned the captives of Zion, He seemed to be dreaming and her lips were filled with praise.

If the return of a people who lived without freedom in 70 years of captivity brings joy, it is a lie to say that we are not thrilled by the salvation of Christ, who was rescued from sin and survived. What has happened is giving thanks with all your heart, praising with all your heart, and dedicating yourself to it with all your heart. So sing happily. He commanded us to rejoice and rejoice with all our heart. Because this great salvation takes place on that day, it can be said to be the greatest festival and day of greatest joy.

Second, He promised salvation from the Almighty. Verse 17 The salvation carried out on the day of Zion is the salvation carried out by the Almighty Jehovah Himself. Here, the Almighty refers to the Triune God. His salvation is absolute. This Almighty is Jesus Christ. Zephaniah is speaking now as he looks at this amazing revelation of salvation. I ask you to believe in this Almighty and come to Him. The problem with the Galatian heresy is that it tries to base faith on works, which is very fatal because it means losing the power of God's omnipotence.

third. It is a promise that will be grand. Verses 18-20 are the promise that God will give us fame and praise among all people. The revelation that Zephaniah received was that of fame and praise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but what they understood as restoration of national reputation ended up falling

into group egoism and becoming distant from reality. Then, the great blessings in the world that he saw could only be completed in Christ. Colossians 2:3 says that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are hidden in Christ Jesus. I hope you enjoy this grace.

## 25. 만국이 진동하는 날 (학2:1-9) 2010. 7. 11.

학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스룹바벨, 스가랴와 함께 일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학개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6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 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 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 왕이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만물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2:21-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엮드려 쓰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그의 동료의 칼에 엮드려지리라."고 했습니다. 자연계의 진동보다 그 속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놀래게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헤롯\_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 넘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화과를 마르게 하고,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행하신 그 분은 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음은 세상을 진동시킬 큰 일이었습니다. 죽음에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죽음으로 이제는 의의 효능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어 디



가더라도 이 의의 기둥을 세워야합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잘 깨 달을 때 모든 일에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만국을 진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피조물보다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있듯이 마지막 때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 지신 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자연계가 만국으로 바뀌어 졌습 니다. 만국이란 모든 민족 곧 사람들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온통 집중하시면서 구원의 진동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만국의 보배가 오심으 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정말 보배로 사셨습니다. 그의 탄생, 그의 사역, 그의 말씀, 그의 약속 특히 그의 죽음이 보배였습니다.

셋째, 세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1) 방어해야합니다. 하박국의 고민이 있어야합니다. (2) 설명해야합니다. 책임은 언제나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합니다. 7배나 더 되는 치료의 광선을 전해야합니다(사30:26). (3) 공격해야합니다. 그러자면 내실이 든든 해야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며 헌신해야 합니다.(롬12:1-3) 진동 의 때에 우리는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마치지 말고 온 세상을 복음 으로 공동시켜야할 지입니다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읍시다.

25. The day when all nations shook (Hag 2:1-9) July 11, 2010.

Haggai was a prophet who worked with Zerubbabel and Zechariah, the spiritual leaders of Israel who returned from Babylon. What we focus on is the

glory of the kingdom of God that Haggai preached. Verse 6: “Just a little while, and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Verse 7: “And I will shake all the nations, and the treasures of all nations will come, and I will fill this temple with glory.” I saw the glory of the King coming and judging the nations and saving his people. What happened that day? Does it happen?

First, the vibration of all things occurs. In verse 6, he prophesied that he would shake the heavens,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which refers to judging all things. Verses 2:21-22 say, “I will overthrow the thrones of the kingdoms and destroy the power of the kingdoms. I will overthrow their chariots and their riders. The horse and his rider will fall by the sword of his companions.” all. The focus is on surprising the countries and people within it rather than the vibrations of the natural world. This means that He will judge mankind on this earth. When the Lord came, King Herod and Jerusalem were in turmoil. He who went beyond the laws of nature, turned water into wine, walked on water, raised the dead, withered figs, cured incurable diseases, and acted beyond time and space, established righteousness on this earth.

Finally, death on the cross was a great event that shook the world. The mystery of the gospel is that death shakes the world. Through the death that satisfied God's righteousness, the efficacy of righteousness is now shaking the world. Wherever we go, we must establish this pillar of righteousness. When we fully understand the doctrine of the cross, righteousness is established in all things.

Second, He shakes all nations. Just as God's interest is in the people who rule over other creatures, so also in the end times, someone who cares about

people will appear. Now the natural world has been transformed into all nations. All nations are all nations or people. He wants to create a vibration of salvation by focusing entirely on people who were created in his image. He will come to them and reveal the kingship of God's kingdom through the coming of the treasure of all nations. That treasure is Christ. He truly lived a treasured life. His birth, his ministry, his words, his promises, and especially his death were treasures.

Third, we must strive for three things: (1) We must defend. There must be Habakkuk's concerns. (2) It must be explained. Responsibility always lies with the believer. So you need to be prepared. We must deliver 7 times more healing rays (Isaiah 30:26). (3) Must attack. To do so, you must have solid internal stability. We must be full of faith and dedicated. (Romans 12:1-3) In times of tremors, we are called to not end up with our own salvation but to unite the whole world with the gospel. Let us be used for that precious work.

## 26. 승리의 세 단계 (롬6:1-14) 2010. 7. 18

죄를 범치 않는 삶은 승리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 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주님은 이제 신 자의 삶에 죄를 이기어 구원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 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복의 약속이 내것이 되 려면 반드시 죄를 범치 않아야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신자의 이 고질적인 고민이 세 단계를 거쳐 해결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단계는 알라는 것입니다. 롬6: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기의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 욕망, 탐욕, 욕, 욕신이란, 말 로 성경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죄를 만드는 생산 공장입 니다. 이것이 자연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가 우리의 관건입 니다. 바울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옛사람을 다 청산하 신 것입니다. 다 이루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음으로 다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하나님)에는 사실인데 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 때 사도는 말하기를 “아는 것 (know)”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 다. 교회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20절에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둘째 단계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안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일은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받는 경험이라면 여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려지는 체험입니다. 죄를 대할 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믿어 야한다. 간주 곧 여감이 없는데 있다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순간 순간 일어나야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일어날 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도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미워할 때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쁜 습성이 이끌 때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순간 순간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계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알고 간주하는 일을 통해 죄를 범치 않고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주께 모두 드리는 헌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자극적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일 많은 유혹이 자랑(교만)이었습니다. 자존심, 질투, 살인과 통합니다. 그때 마다 그는 자신을 모두 드린 것입니다. 제일 안정된 자리는 자신을 산제물로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롬 12:1-3)

26. Three Steps to Victory (Romans 6:1-14) July 18, 2010

A life that does not commit sin refers to a life of victory, a life that bear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The Lord, who has dealt with all sin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now wants believers to overcome sin in their lives and to experience and enjoy the abundant life of salvation. In order to receive the countless promises of blessings in the Bible, you must not commit sin.

In Romans 6, the apostle explains that this chronic problem of believers is resolved through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to know. Romans 6:6 says, “We know that...” It shows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and died with Jesus. The old man here is described in the Bible as having fleshly desires, desires, greed, flesh, and flesh. To put it simply, this is a factory that produces sin. This is all within the natural person, and our key is how to overcome it. Paul says that it is to live as one who has nothing to do with sin. When the Lord died on the cross, he wiped out this old man. Since God offered one eternal sacrifice that completes everything, there is no sacrifice to offer again. Even in Galatians, it says that our affections and desires were nailed to the cross. But it actually looks like it's alive. It is true in the Bible (God), but it is not true for me. How should we handle this at this time? At that time, the apostle said, “knowledge” is necessary. He knew. The church knew too. Paul also says he knew in Galatians 2:20. The Holy Spirit helps you know when you read and meditate on the Bible, when you pray, when you suffer, and when you commit a sin.

The second step is here. People who know can be trusted.

If knowing is an experience that can only be received when the Lord opens it, then this is an experience that is opened when we obey in faith. When dealing with si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righteousness. You have to believe it. This does not mean that you should believe that something exists when it is not there. This means acknowledging the facts as they are. This must happen moment by moment in our lives. When problems arose in the church, the apostles who followed the path of truth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and preaching the word, and the deacons took charge of the church's finances. We must love with faith when we hate, and we must believe and repent even when we are led by bad habits. Please use your faith moment by moment.

The third step is to give. In order to not commit sin and follow the will of the Holy Spirit through knowing and considering, we must learn to devote ourselves to the Lord. Who we give our members to determines the outcome. We must always be on God's side and be God's. Then we can overcome the irritating sin. This happened often within Paul as well. The most common temptation was pride. It is associated with pride, jealousy, and murder. Each time, he gave everything of himself. The most stable position is to offer oneself as a living sacrifice. (Romans 12:1-3)

## 27. 치료의 시대 (말4:1-8) 2010. 8. 1.

세레요한보다 440년 전에 일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미있는 증거입니다. 모든 구약 계시 의 마지막을 알릴 뿐 아니라 떠오르는 신약의 복음을 더 분명하고 충만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고 했고 4:2절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야인 세레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율법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치료의 은혜 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째, 4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일어났습니다. 1) 예배가 외식주의로 나타났고 2) 이방 신의 딸과 통혼하는 일이 일어났고 3) 하나 님께 그릇되지 바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곳은 구약 수 천년 동안 계속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가나 안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큰 은혜를 받고서도 배은망덕의 죄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도둑놈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둑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10절에 나온 약속을 또다시 도전하신 것입니다.

4) 사회에 도덕적의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는데 여호와 경외신앙이 무너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왕 되심을 믿 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 기는 열심이 일어나야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치료가 급속히 일 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치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정황 속에 말라기는 신약에 오실 치료자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2절에 의로운 태양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의로운, 태양이라 했는가요?

1) 자신의 의로 치료하기 때문이고 2) 치료가 급속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치료의 원천이시고 풍성이십니다. 그리스도의 3년 사역은 치료의 사역이셨고 그 후 성령이 임한 시대는 치료가 에스겔의 환상강수처럼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하셨습니다. 태양이 광선을 비추일, 때 비로소 치료되듯이 그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일하실 때 그제서야 복음의 효력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치료의 영이시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든본 치려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최대의 환난과 곤고가 넘치는 이 시대에 넉넉한 치료를 체험해야 합니다.

세째, 어떤 치료의 길인가요?(2) 말라기 시대에 여호와와의 경외로 치료되었는데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때 할 일은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성취해야 합니다. 모세의 시내산 율법은 복음안에서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신의 성취가 우리오니 생각과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믿어야 합니다.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며 믿음운동입니다. 우리 시대는 근본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이 치료되기 위하여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의 장래, 가정의 장래, 직장의 장래 그리고,

사회장래의 치료는 그리스도의 복음화에 달렸습니다. 그 자리로 나갑시다.

27. The Age of Healing (Malachi 4:1-8) 2010. 8. 1.

The prophecy of Malachi, the last prophet of the Old Testament, who worked 440 years before John the Baptist, is more meaningful evidence than any other. This is because it not only announces the end of all Old Testament revelations, but also shows the emerging gospel of the New Testament more clearly and fully. In verse 3:1, it was said that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ould come, and in verse 4:2, it was prophesied that the sun of righteousness would rise. John the Baptist, Elijah, came and prepared the way for the Messiah, and Jesus Christ preached the gospel of repentance and all laws were completed. “How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does the grace of healing, leaping like a calf out of the stall, occur?

First, four salient features arose. 1) Worship appeared to be hypocrisy, 2) intermarriage with the daughter of a foreign god occurred, and 3) the problem of wrong offering to God arose. This is theft of tithes and offerings. This was a problem that continued to arise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Old Testament. Israel did not know how to be thankful even after receiving Canaan, and fell into the sin of ingratitude even after receiving great grace. A bunch of thieves have gathered. However, he says he is not a thief. This is another challenge to the promise made in verse 3:10.

4) Moral corruption was extreme in society. These problems all came from one source: the fear of Jehovah had collapsed. They did not love God and did not believe in Him as King. Even in our day, there must still be a zeal to serve

the God of the Bible as King. When this is restored, healing occurs rapidly and the power of the gospel can be experienced.

Second, \_who was the therapist? In that situation, Malachi gives hope to the healer who will come in the New Testament. In verse 2, it is said to be the sun of righteousness, and it refers to Jesus Christ. Why is it called righteous and the sun?

1) Because healing is done through one's own righteousness, and 2) because healing is rapid and abundant. Truly Christ is the source of sustenance and abundance. Christ's three-year ministry was a ministry of healing, and after that, during the era when the Holy Spirit came, healing increased exponentially like Ezekiel's visionary river. He says in verse 2 that he radiates healing rays. Just as healing occurs only when the sun shines its rays, only when the Holy Spirit coming from him works does the effect of the gospel become known.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healing, so in the book of Acts, when His Holy Spirit came, a strong attack arose. It is the cure for sin. In this age of greatest tribulation and suffering described in Romans 8, we must experience ample healing.

Third, what kind of treatment is it? (2) In the time of Malachi, treatment was done through the fear of Jehovah. How will the treatment be achieved? What needs to be done then is to fulfill the law's requirement of love. Moses' instructions on Mount Sinai are all fulfilled in the Gospel. We must not forget this goal. The achievement of righteousness is the goal of our thoughts and lives. Because this is the purpose of redemption. You must believe through repentance. The revival movement is a movement of repentance and a movement of faith. In our time, fundamental treatment must occur. In order

for your soul to be healed, you must believe in the gospel. The future of the individual, the future of the family, the future of the workplace, and the future of society depend on the evangelization of Christ. Let's go to that place.

## 28. 추수일꾼(마9:35-38) 2010. 10. 31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자에 나온 대위임령 속에 그대로 드러난 2것은 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살며 세상에서 구원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 겨우 우아하다 지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유어선해 보안 입니다.

결국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위로 오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오는 것은 성령이시고 죄로볼터 의 구원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추수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첫째, 추수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소명은 사명을 위하여 행해지는 첫 관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소망 곧, 목적이 있습니다.(요1:41, 마4:19, 눅5:10, 9:15)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곧 전도는 가르치며 전하며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1) 가르치 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을 가르치 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일꾼은 성경을 잘 알아야하고 맛을 보아야 합니다. 2)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 나라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둘째, 어떻게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사랑 이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36절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행20:

에 장차 이리가 오는 것을 내다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본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하고 (harassed) 기진한 (helpless) 상태의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공황히 여기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생기고 그 공황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보는 동시에 무력한 상태를 볼 때 가만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를 볼 때 불쌍히 여겨야합니다. 어미 새가 자기 새끼 죽을 때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공황이 일고

-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 오셨습니다.

셋째, 추수 일꾼을 구해야합니다., 주수란 마지막 때 되는 일입니다. 가을 추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갑자기 추수란 말을 사용하심은 이 때가 종말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최 종말이라 할까? 그런 위기 의식과 긴장감을 가지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중대하고 시급한 때에 총동원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능숙하게 수행할 일꾼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 영이 난 무한 우리 시대에 추수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일꾼이 되십시오

## 28. Harvest Workers (Matthew 9:35-38) October 31, 2010

Both then and now, the purpose of the Lord establishing the church is for the salvation of his people. The command of blessing given to Abraham in

Chapter 12 of Genesis is directly revealed in the Great Commission in Matthew 28 because the church must live for salvation and focus on establishing salvation in the world. It is barely elegant; become rich on earth; This is security for fishing boats.

Ultimately, our experience is that there is no satisfaction. Because only what comes from above satisfies us. What comes above is the Holy Spirit, salvation from sin, and after salvation, it becomes the Lord's harvest on this earth.

First, what is the mission of a harvest worker? Vocation is the first gateway to mission, and the Lord's calling always has a hope, a purpose. (John 1:41, Matthew 4:19, Luke 5:10, 9:15) Evangelism is the work of preaching Christ and teaching. It was about conveying and healing. 1) Teaching. It specifically teaches us to understand Christ and his words and apply them to our lives. In short, it is teaching the Bible. To do so, workers must know the Bible well and have a taste for it. 2) Next is to sprea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Heaven is the kingdom of God and refers to his reign. The news about that country is the gospel.

Includes work done.

Second, how can we carry out our mission well? A compassionate heart like Jesus must arise. A compassionate heart, that is, love, becomes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carrying out this mission. Verse 36 The Lord said that he saw them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Paul also Acts 20:

They foresaw the coming of wolves and entrusted them to God. In the text, God took pity on them when he saw them suffering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It is said that a compassionate heart arises

from a poor heart, and that mercy overcomes judgment. When you see the horror of sin and at the same time see your helpless state, you cannot remain still. Like the good Samaritan, we must feel pity when we see a robber. There is a resonance that makes a mother bird's heart explode when her baby dies.

-You need it. The Holy Spirit came to give us this

Yes.

Third, we need to find harvest workers. Harvest workers are something that will happen in the end times. The Lord is the owner of the fall harvest. The Lord's sudden use of the word harvest here indicates that this is the end. Should we say that this is the end? He asks us to have that sense of crisis and tension. We are asking you to mobilize all your hands and pray for workers to be sent at this critical and urgent time. Workers who will skillfully carry out the Lord's Great Commission are required. I hope that you all become faithful workers who are used in this work. Become a harvest worker who pleases the harvest owner in our infinite age where false spirits are born.



## 29.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라 (롬 12:1-8) 2010. 8. 29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도리어 그것을 더 강하고 효력있게 합니다. 기독교의 행함을 오해하는 이유가 당연한 것은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은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는 기본적인 보 통죄사함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은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 도는 본문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번제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의 길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번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가 깊으며 가장 행복된 삶의 길입니다. 자기 몸을 다 주께 드리는 삶이 되 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제물로 바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제도가 보여주는 대로 짐승과 가루처럼 드립 려져 모두 바쳐진 생애 곧, 나실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나의 헌 신과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의 가장 복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왜 복된가요? 1) 절대 보 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2)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 때문입니 다. 3)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1) 세상, 본받지 말고, 즉, 세상 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합 니다. 분별하면 행하게 되어있습니다. 3) 새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고후5:17)

둘째,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고전12:8-10에  
 나온 은사 9가지(지혜, 지식, 믿음, 신유,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는  
 신령적 은사로 로마서와,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처럼  
 성령받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맺히는 은사가 다양 합니다. 로마서 은사  
 7가지는 교회에 필요한 공적 덕을 세우는데 집중합니다. 무엇인가요? 6-  
 8에 열거한 7가지 은사의 분량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요?  
 구원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공통 적으로 주어진 그나와 같으나(마20:)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정하 신.대로 다양하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마25:14-30) 만의 중심 인 교회는 구원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의 지혜의 섬김으로 이 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 내는.  
 그리스도 몸입니다. 구원과 은사 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요? 구원 없는  
 은사는 세속적 지혜일뿐 하나 님의 영광과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후엔  
 소자의 은사라도 그리스도 의 대접을 받는 존귀한 은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알고 개발하여 지혜롭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신 아브라함의 복이고(창12:1-3)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 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훈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 로 하기 위하여 성령충만을 항상 힘써야합니다.

## 29. Us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Romans 12:1-8) August 29, 2010

Salvation is received by believing in Jesus. Life after salvation is also lived by faith. It is easy to misunderstand that it means no action, but on the contrary, it

makes it stronger and more effective. The reason why Christianity is misunderstood is because it is a secret. Salvation that began with the Holy Spirit was made to bear fruit through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hile grace refers to the basic common forgiveness of sins, gifts are the way in which the grace of salvation is revealed as fruit.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you simultaneously receive gifts. In the text, the apostle explains life after salvation in two ways.

First, he tells us to live a life of burnt offering. The path after salvation is to live a life of burnt offering, offering one's body as a living sacrifice. This has deep roots and is the path to the happiest life. It means living a life that gives your whole body to the Lord. It means living by sacrificing your thoughts, emotions, and will. As the sacrificial system in Leviticus shows, one lives as a Nazarite, a life in which everything is sacrificed and poured out like beasts and powder. We live with the dedication of Hannah and the dedication of the woman who broke the alabaster box. This is the most blessed path for Christians. Why are you blessed? 1) Because you receive absolute protection. 2) Because we enjoy the abundant fruits of salvation. 3) Because it is used as a means to change the world. Then we must do three things. 1) Do not follow the world's examp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world's standards of value. 2) We must discern God's will. If you discern, you will act. 3) We must strive to have a new heart. (2 Corinthians 5:17)

Second, we are told to us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that we have received. The nine gifts listed in Corinthians 12:8-10 (wisdom, knowledge, faith, healing, prophecy, discernment of spirits, speaking in tongues, and interpretation) are spiritual gifts and overlap with those in Romans. However,

like the tip of an iceberg, there are various gifts that freely come to those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The seven gifts in Romans focus on building public virtue necessary for the church. What is it? How will you wisely use the seven gifts listed in 6-8? Salvation is like mina, which is commonly given to all Christians (Matthew 20:), but gifts are talents given in various ways as determined by God. (Matthew 25:14-30) The church, which is the center of salvation, gives various gifts of salvation. It represents the image of God achieved through the service of wisdom of those who have it. It is the body of Chri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alvation and gifts? A gift without salvation is only worldly wisdom and has nothing to do with the glory of God, but after salvation, even the gift of a child is a precious gift that is treated as Christ. Therefore, knowing and developing the gifts you have received within the church and serving the Lord wisely and faithfully is something that cannot be exchanged for anything in the world. This is the blessing Abraham wanted to give to the church (Genesis 12:1-3), and it teaches us to do this. We must always striv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prophecy is the fountain of faith, serving is serving, those who teach are teaching, those who are in authority are authorizing, those who give alms are faithful, those who rule are diligent, and those who are merciful are joyful.

### 30. 성경적 종교 (약1:26-27) 2021. 9. 19.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롬1:19)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경건인데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인 경건을 상실하면 종교를 상실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 없는 사랑은 짐승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는 무엇인가요?

첫째, 종교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입니다. 성경은 참 종교를 믿음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 키는데 이것이 종교입니다. 아담은 만들 때부터 종교적 존재로 만 들었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대용물을 찾으려 되어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대상을 찾아 그것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종교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텐에서 전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멜리테 성에서 독사가 물어 죽지 않은 바울에게 신이 나타났다고 경배하려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앓은뱅이가 나오니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전적으로 믿을 대상을 찾아가는 것은 그 속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해 바라기, 아욱이 해 따라가듯 인간은 무엇 인가와 절대 관계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못 삽니다. 절대 믿는 대상 과의 교분이 없으면 결코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특히, 현대인들은 모두 자기주의자가 되 어 자기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해결된 창  
종교를 가진 예 수쟁이들은 인간의 근본을 아는 자들입니다.

둘째, 창 종교는 마음에 머웁니다. 그러면 인간 속에 흐르는 종교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요? 이것이 지성에 있다면 지성 을 중심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감정이라면 감정에 초점을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지요. 의지에 있다면 의지에 집중 해야 하겠지요. 사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장난하고 사람을 농 락합니다. 성경은 종교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4: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식왕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  
영, 영혼이 지정의 좌 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관 리를 잘해야 합니다.

세째 참 종교는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참 종교는 모든 생활을 지배합  
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생활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약1:26-27에 야고보는 참 경건 곧 참 종교 를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1)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고 (2)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참 종교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을 안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란 성령이고 성령이 오시 면 참 종교 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 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 Biblical Religion (James 1:26-27) 2021. 9. 19.

“For that which may be known of God is plain in them, and God hath made it  
plain to them” (Romans 1:19), “The function of knowing God is godliness,

and this is religion. A heart that loves and fears God. If you lose your piety, you will lose your religion. So what does the Bible teach about love?

First, religion is a true relationship with God. The Bible uses the word faith to refer to true religion. Faith points to fellowship with God, and this is religion. Adam was created to be a religious being, so when he leaves God, he is destined to find a substitute. Religiousness means finding someone to whom one can devote one's all and wanting to communicate with that person. He saw Paul worshiping an unknown God when he was preaching in Athens. Afterwards, he tried to worship in the city of Melita, saying that God had appeared to Paul, who had not died from the bite of a poisonous snake. This was also done in Lystra, when a lame man was healed. The reason people seek out something they can completely believe in is because the seeds of religion are planted within them. Just like the sunflower and the mallow follow the sun, humans cannot live because they are lonely if they have absolutely no relationship with something. Without a relationship with someone he absolutely believes in, he will never be able to live. People who do not know God, atheists, agnostics, especially modern people, have all become egoists and serve their own religion. We have ended up becoming people who do not know religion. Jesus-seekers who have a religion where fellowship with God has been resolved are people who know the fundamentals of humanity.

Second, window religion stays in our hearts. So where does the religion that flows within humans find its place? If this is in the intellect, then everything should be done centering on the intellect. If it's about emotions, you should live a life that focuses on emotions. If it is about will, you have to focus on will. In fact, people joke and make fun of people with this kind of thinking.

The Bible says that religion has its place in the heart. Proverbs 4:23 says to guard your heart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clear that the mind is the king of all things. The heart, spirit, and soul are the designated seats. It is said that this is the source of life. Therefore, you must take good care of your mind.

Third, true religion appears in daily life. True religion governs all life. It means that there will be changes in your life. It is expressed through a good life. In James 1:26-27, James pointed out two things about true godliness, or true religion. (1) Taking care of widows and orphans during tribulation, and (2) protecting oneself and not being stained by the world. Those of you who know the true religion will know happiness. This is because the source of blessings is the Holy Spirit, and when the Holy Spirit comes, true religion becomes active. This is because we can come to know God and have normal fellowship with Him.



### 31.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롬15:14-21) 2010. 9. 21.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명 이 불타는 교회, 종으로 섬기는 교회로, 사명을 위해 살 것을 강조 한 것은 그 자체가 여러 방면에 우리를 복되게 하도록 목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은 후 사명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방향 생활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 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라고 말한(16) 바울의 확신은 모든 신자 의 사명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면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마4:19, 행1:8)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요?

첫째, 부름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구약 의 성전 제사장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일꾼으로 사는 것 을 가리킵니다. 그러자면 복음을 맛보아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의 백성을 찾아내 그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증 거는 전쟁이기에 생활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육과 싸우며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사명의 범위는 항상, 세상을 대한 일입니다. 롬12:에 사 랑의 생활 즉, 선으로 악을 이기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 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에 항상 힘쓰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모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습니다. 복음 제사 장은 그가 처한 어디서나

변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다 나엘처럼 가정, 직장 그리고 개인의 꿈에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요1:50-51)

셋째,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은 바울처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17-20) 3가지를 힘썼습니다. 1) 말 - 설교 가르침 2) 행실 - 윤리 도덕 삶 자체 3) 표적과 기사 -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일을 성령이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에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자신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행복은 노년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분별력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 때 복되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나타나심을 목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피해가는 사명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이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31. Priest of the Gospel of God (Romans 15:14-21) 2010. 9. 21.

The motto of our church is a church rich in the Word, a church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 church burning with mission, a church serving as servants, and the reason it emphasizes living for the mission is because it aims to bless us in many ways. Living without knowing the mission after receiving a calling is like wandering in the wilderness of Israel. Paul's conviction that Christians are "priests of the gospel of God" (16) is a title that refers to the mission of all believers. If you live for this, you can live the greatest work and happiest life. (Matthew 4:19, Acts 1:8)

How can Christians successfully carry out the mission of the gospel?

First, you must be sure of your calling. The priests of the gospel are the essence of the temple priests of the Old Testament. In short, it refers to living as a servant of Jesus. To do so, he must taste the gospel, find God's people in the world, and offer them as a sacrifice. Our job is to believe in the gospel, live by it, and spread the gospel. Proving the gospel is a battle, so we must fight against the flesh and strive to abide in the Lord for the fruit of life and evangelism.

Second, the scope of our mission is always about dealing with the world. Romans 12: A life of love, that is, overcoming evil with good, serving the Lord with diligence, rejoicing in hope, being patient in tribulations, persevering in prayer, and loving your enemies all focus on living as a priest of the gospel. It's correct. Paul had a dream of world evangelization. Because a gospel priest is a person who changes wherever he is. Like Nathanael, he sees greater things in his family, work, and personal dreams (John 1:50-51).

Third, the way to carry out that mission is to be used as a tool by the Holy Spirit like Paul. (17-20) I worked hard on three things. 1) Words - Sermons and teachings 2) Conduct - Ethics and moral life itself 3) Signs and wonders - The Holy Spirit reveals what God Himself does. The biggest problem in this matter is ourselves. Simeon and Anna's happiness is because they clearly knew their mission in old age and obeyed it. Solomon's discernment was also achieved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We are blessed when we live as God's instruments.

What is your mission? Like Paul, please live as a priest of the gospel with the goal of the appearing of the Holy Spirit anytime and anywhere. I hope he lives

as a missionary who avoids even death. Please renew this mission ahead of the revival meeting.

### 32.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롬13:11-14) 2010. 9. 5

신자가 온전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에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책망과 교훈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미 구원의 완벽한 그림을 보았다 할지라도 생활에 당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13 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교회생활의 지침을 제시 하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 여줍니다. 만약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 이탈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 니다.(히 6장 참조)

왜 온전한 구원에 힘쓰며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왜 힘써야 합니까? 구원 자체가 우리의 진실한 수고를 필 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로가 아니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불 가운데서 건짐 받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참 믿음은 수고한 것만큼 은혜가 깊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값진 구원을 위하여 수고를 통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감은 세 마포 옷을 풀어주도록 하며 오병이어를 받아 나눠주는 수고에 동참 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승천 하신 후엔 그 수고를 더 강하 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정 도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 니다. 바울은 그 긴박성을 자다가 깰 때가 된 것 같고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기 회인식이 강해야합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것을 의식하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차려 깨어 현재 내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지 않은데서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이 급박한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벗는 일과 입는 일입니다. 1) 무엇을 벗습니까?

어두움의 일입니다. 어두움과 결탁된 모든 일들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어두움을 말합니다.(1) 방탕과 술취함 (2) 음란과 호색 (3) 투기와 시기를 벗어야 합니다. 위의 모두는 한 마디로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랑, 욕심, 탐욕, 자아 욕 등으로 표현된 부패성과 싸우는데 너무 타협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것과 싸우기 위하여 고민하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입습니까? 반대가 되겠지요. 순결,, 진실, 착함을 바울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의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 받고 두려움으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종말 의식을 가진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위 갑옷을 입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32. Towards complete salvation (Romans 13:11-14) 2010. 9. 5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in religious life is that believers neglect their complete salvation. The Bible recommends this as both a rebuke and a lesson. Even though we have already seen the perfect picture of salvation in Romans, this is the problem we face in life, which we are now dealing with in chapter 13. It presents guidelines for social and church life and shows what kind of person one should be through awareness of time. He warns that if he does not strive for salvation, he may fall away (see Hebrews 6).

Why should we strive for complete salvation and what else should we do?

First, why should you strive? Because salvation itself requires our sincere effort. This is not a merit, but an act of faith.

If you ignore it, you may be saved from the fire. Since true faith deepens grace as much as one labors, the Bible wants to achieve it through labor for valuable salvation. It's like God making us participate in the effort of untying the linen clothes that were wrapped around Lazarus and receiving and distributing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After the Lord ascends to heaven, His demands become stronger for our efforts. He tells us to fight hard enough to avoid misunderstanding that it is through our own efforts. A fight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is required.

This is because this is God's method of complete salvation. Paul says it feels like it's time to wake up from that sense of urgency and he's closer than he was at the beginning. In order to achieve complete salvation, we must have a strong awareness of opportunity above all else. Moses in the Old Testament was conscious of this and prayed t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Paul also tells us to make the most of our time. Our time was also limited. If the Lord tells him to come, he must go. Therefore, I need to wake up and work hard on

what I am currently doing. The Lord does not necessarily reap where he did not sow. Second, what should we do in these urgent times? Paul tells us to do two things: take off and put on. 1) What do you take off?

It is a work of darkness. This means stopping all things that are colluding with darkness. He speaks of three darknesses: (1) debauchery and drunkenness, (2) lewdness and sensuality, and (3) envy and envy. In short, all of the above come from the desires of the flesh. There are too many compromises in fighting corruption expressed in boasting, greed, greed, and egoism. I hope you will think about it, give your time, and make an effort to fight this. So what do you wear? It would be the opposite. Purity, truth, and goodness are what Paul calls light. We must be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Christ and God. It means having the character of righteousness. We who have been saved momentarily must work hard to achieve complete salvation, even shedding our blood. All your efforts should be focused here. If you do not do this, you will be warned that you may not be able to achieve salvation, and you will have to do it with fear. That is why the apostle recommends that believers with an end-time consciousness should cast off the work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 33. 주의 뜻이 세워진 나라 (마20:1-16) 2010. 8.8.

포도원 주인이 네 부루의 일꾼을 (3, 6, 9, 11) 고용하는 동기, 과정 그리고 결광를 보이며 주인의 뜻대로 품값이 지불된 포도원 비유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였어도 아주 공평하고 의로운 처사였음을 주인이 분명히 밝힙니다. 주인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주권을 강조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어떠한지 배웁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천국은 주인의 뜻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와 함께 택하심 의 구원을 깨달을 때 주인의 뜻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내 힘을 강조하면 주인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일하는 포도원을 만든 것, 차등 없는 고용방식, 이윤보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4차례나 나가 보았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하고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임을 알지 못할 때 이기주의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천국 백성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혈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권을 알 때 모든 것이 바로 되어갑니다.

둘째,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로 부터 불평이 일어났습니다.(12) 무엇을 원망했나요?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불평입니다. 그 때 주인은 은혜의 원리로 천국이 다스려짐을 보여줍니다. (13) 늦게 들어 온 사람들에게도 똑 같이 줌으로 인간주의적 보상심리를 근본적으로 뒤엎으신 것입니다. (예: 족보)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의가 지배하는 곳, 은혜가 천국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은혜를 잊었기 때 문이고 계속 배은망덕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합니다. 신자의 마음에 은혜가 지배해야합니다. 어떤 죄인이 라도 용납되고 어떤 소자라도 용납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 자 신부터 은혜생활을 해야합니다.

셋째, 천국은 섬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16절"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9장 30절에도 베드로의 질문에 주를 위 해 자식 전토 부모 자식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가 많지만 교만도 많다는 말이 되고, 선 자는 쉽게 넘어질 유혹이 많 다는 말도 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한다는 말도 됩니 다. 그러므로 섬김 받는 것 보다 섬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 도할 때도 겹세마네 동산의 결론, 전도할 때도 결과를 주게 맡기 고, 장사할 때도 주인의 뜻에 무조건 맡기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33. A nation where the will of the Lord is established (Matthew 20:1-16) 2010. 8.8.

The parable of the vineyard where the owner of the vineyard praises the four workers (3, 6, 9, 11), showing the motive, process, and resolution, and paying the wages according to the owner's will, shows that although it seemed unfair, it was a very fair and righteous action. This is definitely bright. The problem is solved by emphasizing the owner's sovereignty by saying, "I did what was mine as I wanted." Here you learn what heaven is like. Paul said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What is heaven like?

First, heaven is a place where the master's will rules. It was God who created the vineyard and sought out people to tend it and work in it. When you send Christ and the prophets and acknowledge with your heart and mouth the merits of Christ and realize the salvation of election along with the grace that allows you to be saved, you will keep the Master's will in your heart. If you emphasize your power, you will put your will ahead of the master's will. What does owner mean in a vineyard? It was about creating a working vineyard, employing a non-discriminatory employment method, and valuing doing the Lord's will rather than profit.

According to the text, I went out four times. The owner made a promise and hired him as a worker. When we do not understand the will of the owner of the vineyard, we have no choice but to fall into egoism, so we grumble and complain, and follow the ways of flesh and blood to follow the direction and way of life of the people of heaven. When you know sovereignty, everything becomes right.

Second, heaven is a place where grace reigns. Complaints arose from those who came in first. (12) What did they complain about? It's unfair. It's a very natural complaint. At that time, the Master shows that heaven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grace. (13) By giving the same amount to those who came in late, God fundamentally overturned the humanistic psychology of compensation. (Example: genealogy) This was grace. Where righteousness reigns, grace establishes heaven. The failure of the Jews is because they have forgotten grace and continue to be ungrateful. The church today must be a place where grace reigns. Grace must reign in the heart of a believer. Any sinner must be accepted, and any child must be accepted. To do so, I must first live a life of grace.

Third, heaven is a place full of service. The final conclusion of this parable is important. Verse 16: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In verse 30 of chapter 19, in response to Peter's question, he said, "Those who have left their children, their land, their parents, for the Lord's sake will receive many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will be last will be first." In the age of grace, there is a lot of grace, but there is also a lot of pride. It also means that there are many temptations for those who stand to fall, and it also means that we must continue to provide grace to the humble. When preaching, leave it to the conclusion of the Garden of Gethsemane, when evangelizing, you leave it to the Lord to give you the results, and when doing business, you leave it unconditionally to the will of the master and follow through until the end.

### 34. 조용한 칠천인 (롬 11:1-10) 2010. 8. 15.

이스라엘 구원을 다룬 본문에서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신득의의 원리로 구원받는 것을 본 바울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26,32) 누가 구원받으며 누가 구원받게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준비한 조용한 칠천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완고한 사람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까요?

첫째,,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엘리야시대의 어두움은 예수님과 바울 시대 어두움 그리고 우리의 어두움을 능가합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의 특징은 어떠했을까요? 제단도 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엘리야를 죽이려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엡2:1-2에 나온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아주 어두운 때였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중간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현장은 엘리야시대처럼 마귀가 발광하는 시대입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쇠고랑을 채워 놓으나 초자연의 힘으로 풀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귀신들린 아이처럼 절제가 없습니다. 교훈이 변질되고 외식으로 나가고 사명을 팽개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동화된 때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흑암을 분별하고 탄식해야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7천인이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구원에도 그렇지만 사명에도 모든 것을 준비 하셨습니다. 조용한 7000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세가 지 특징을 가졌습니다.1) 조용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 를 힘쓰는 사람이다.(마6:6) 2) 7천인은 완전한 수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이루십니다. 3) 경건으로 무장 한 7천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 다. 오바다, 엘리 사, 신학생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반열에 모두 들어가시기 바 랍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준 비하며 사명을 위해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불을 받아야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로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예언 된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마 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 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하 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 은 혜를 받기까지 골방을 좋아했고 고난이 있었고 낙심 되었으나 하나 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 받은 엘리야가 끝까지 쓰임 받 은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말세에 남겨두신, 조 용한 7천 반열에 들어간 자로서 대위임령에 성실히 행하여 궁창의 별처럼 빛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 34. The Quiet Seven Thousand (Romans 11:1-10) 2010. 8. 15.

In the text dealing with the salvation of Israel, Paul shows that there is a remnant of Israel, like the 7,000, who did not bow the knee to Baal. Paul, who saw the remnant of Israel being saved through the principle of righteousness by faith, speaks of the salvation of all Israel. (26,32) The silent Seven Thousand prepared by God to determine who will be saved and who will be saved, kneel to Baal. It means that there are people who did not kneel. How do we lead stubborn people to the Lord when we encounter difficulties in evangelism?

First, we are living in dark times. The darkness of Elijah's time surpasses the darkness of Jesus and Paul's time and our darkness.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ld Testament era of Elijah? They killed the altar and the prophets and tried to kill Elijah, which was a strong challenge to God. As Ephesians 2:1-2 states, it was a very dark time when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was active, following the lusts of the flesh and following worldly customs. The people are all confused in the middle. The gospel scene we witness today is an era where the devil is in full swing, like the era of Elijah. This is an era in which people are shackled like a Gerasean madman, but are freed by the power of the supernatural. Like a child possessed by a demon, there is no self-control. When the teachings are distorted, hypocrisy, the mission is abandoned, made concessions, compromises, and assimilation, we must discern the darkness and lament like Elijah.

Second, there are 7,000 people prepared by God. Elijah God is the God of Jireh. He prepared everything, both for salvation and for mission, just as the Lord who appeared to Abraham prepared everything. He has prepared 7000

quiet people. A prepared person has three characteristics: 1) He is quiet. He is a person who strives to have fellowship with God in secret. (Matthew 6:6) 2) 7,000 people are the perfect number. God's work is accomplished with everything He has prepared. 3) 7,000 people armed with piety. I did not bow the knee to Baal. He prepared Obadiah, Elisha, seminarians, etc. I hope you all join this class. The most blessed thing at the end of this world is to live a life that is used by God. In order to do so, please understand your mission, prepare for it, and obey from the smallest things for the sake of your mission.

Third, we must receive the fire of the Holy Spirit. Elijah's mission is to bring Israel to repentance and return to God. It is a matter of turning one's heart as prophesied through Malachi.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world is to move one's heart. It is about turning a father's heart to his children and a child's heart to his father. Next i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ow difficult is it to change people's hearts and build God's community? This is impossible without the presence of God. Elijah did it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Until I received this grace, I loved my room, suffered hardships, and was discouraged, but I heard the voice of God. Just as Elijah received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was used until the end, believers must receive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s one who has entered the quiet class of 7,000 left behind in the last days, I pray that you will faithfully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and shine like a star in the firmament.



### 35. 로마서의 선교 (롬 16:17-20) 2010. 8. 22.

로마서 세계를 생각하는 흐름에서 우리는 로마서에 나타난 선교가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처음의 로마서 목적과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선교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진리를 셋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 선교의 내용, 보통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원과 전도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마4:19) 뱀전2:9절에는 신자를 가리켜 제사 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선교사 선덕사로 표현합니다. 본문은 선교의 내용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깊이와 높이를 오가며 설명하면서 현재 로마 교인들이 알기 위하여 또 다시 마지막에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창세전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 속에 결정된 비밀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도 보화며 비밀이 나타났고 했습니다. 신비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 그리스도라고 하며, 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선교의 내용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전하느냐?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예수라는 것입니다.(행16:31)

둘째, 선교의 대상,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릴까요?, 모든 민족입니다.(마28:19-20, 창12:3) 본문의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자기 동족구원뿐 아니라 로마와 스페인까지(20) 생 각한 것을 보면 온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에베 소 교회의 부흥에서 세계의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입을 넓게 열어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함으로 그런 비전이 충만하여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인생설계를 세우고 때가 되면 온 땅으로 가 야할 꿈을 가져야합니다. 현재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것으 로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 하여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교의 방법,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릴 때도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했습니다.(롬10:9-10) 이신성화, 이신 영화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선교하나? 로마서에서 우리는 4가지 즉, 1) 오직 성경(17-18) 2) 오직 믿음(20) 3) 오직 은혜 4), 오직 성령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선교방법이 무엇인가요? 성경공부 입니다. 진리를 개인이 접하여 깨 달은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경으로 나가면 성령 충만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관이 나타난 로마서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너무 간단한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위대한 생애를 설계합시다.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 35. Mission in Romans (Romans 16:17-20) August 22, 2010.

In the flow of thinking about the world in Romans, we want to receive grace by focusing on what kind of mission is revealed in Romans. At the end of today's text, Paul repeats the purpose and theme of his first letter to the Romans and shows his missionary strategy. He divides the truth of missions into three parts.

Firs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content of missions, usually evangelism and missions, and salvation and evangelism. (Matthew 4:19) In 1 Peter 2:9, believers are referred to as priests and are expressed as missionaries of good deeds. What does the text say about missionary work? It is said to be the gospel of Christ. To summarize, this is Jesus Christ. Missions and evangelism are about making people believe in Jesus. In the Epistle to the Romans, Paul goes back and forth between depth and height, and because he wants the current Roman believers to understand, he goes into greater depth again at the end. What do you call this? It is said to be a secret before creation. This is the mystery decided in the council of God. In Colossians, it is said that treasures and secrets were revealed. They say it is a mysterious revelation. Paul says the Bible, Christ, and he says my gospel. You who have been saved, what should you live for now? Please know clearly that the content of mission is the gospel, Jesus Christ. Who are you preaching to? It's not about boasting, it's about Jesus (Acts 16:31).

Second, the target of missionary work: to whom should this secret be revealed? All nations. (Matthew 28:19-20, Genesis 12:3) Paul in the text is now in a difficult position. Even though he suffered many hardships in Corinth, he had a dream of becoming a missionary. Considering that he thought not only of

saving his own people but also of Rome and Spain (20), he dreamed of evangelizing the whole world. He dreams of a world revival from the revival of the church in Ephesus. His children should also open their mouths wide and pray for the Holy Spirit to work, so that they can be filled with such a vision and create a life plan that contributes to world evangelization. When the time comes, he should have a dream to go to all the earth. He must think of focusing on the mission as it is available in the present. This is because God made us believe in Jesus for this purpose.

third. There is a way to do missionary work and to make Christ known to the world, and it is very simple.

Paul called this justification by faith. (Romans 10:9-10) It also includes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of God. How do you do missionary work? In Romans, we learn of four things: 1) only the Bible (17-18) 2) faith alone (20) 3) grace alone 4) and the Holy Spirit alone. What is the missionary method of the Ephesus church? This is a Bible study. The truth is realized through personal contact. If you go to the Bible to understand the truth,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e teachings of Romans, where Paul's missionary view is expressed, we have confirmed an important truth that is too simple. Let's go to that place and plan a great life. The world is my parish.

### 36. 삼위일체 하나님 (고후13:13) 2010. 9. 26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컫는 상위로 계심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세 개체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세 양상 혹은, 세 형태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실 수 있으십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오묘한 신비는 삼위가 각각 하나님의 본질 전부를 소유하시며 삼위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구약은 하나님 안에 하나의 인격 이상이 계심을 가르쳐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창1:26,11:7) 그리고 여호와와 사자는 하나님 의 한 위로 나타납니다. (창16:7-13 18:1-21 19:1-22) 또 성령은 하나의 구별된 인격으로 일컬립니다. (사48:16, 63:10) 더욱이 메시야는 다른 인격과 교제를 나누는 분으로 묘사된 구절들도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적 발전으로 신약은 더 분명한 증거를 포함합니다.

가장 강한 증거는 구속사 속에서 성부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더욱이 마28:19의 대위임령이나 고

버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만물의 창조주요(고전8:6) 12:9 엡

1:17) 이스라엘의 아버지요(신32:6 사63:16) 신자의 아버지로서(마

5:45 56:6,9,14 롬8:15)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주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에서 이것은 제 2위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여 상위 중 제 1위에 적용되었습니다.(요1:14,18, 8:54 14:12,13) 이것은 본래부터

아버지격이므로 지상의 모든 아버지는 단지 이것 을 반영하는  
그림자입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제 2 위는 "아들" 혹은,  
"성자"로 일컬립니다. 성자라는 이름은 성부로 부터 나왔다는  
것이며(요1:14, 18, 3:16, 갈4:4)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로서(마8:29, 26:63,  
요1:49, 11:27) 성령의 역사를 통한 특 별한 탄생 때문에(눅1:32,35)  
붙여진 명칭입니다. 삼위일체의 제 2 위 되시는 그의 특징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시2:7 행

13:33 1:5) 영원한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 안 에 있는  
아들의 인격적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특별히 성자에게 돌 려지는 사역은  
중보의 사역으로 창조의 중보자이시며 (요1:3)히

1:2,3) 구속의 중보자이십니다.(엡1:13-14) 넷째, 성령 하나님- 소  
시나안파, 유니테리안 그리고 현대주의자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 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주장하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 에 그는  
인격자로 나타납니다.(요14:16, 17,26, 15:26 16:7-15 동

8:26) 그는 지성(요14:26)과 감정(사63:10, 엡4:30)과 의지(행16:7,  
고전12:11)를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찾으 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분 으로  
표현합니다. 더욱이 그 분은 자신의 능력과 구별됩니다. (눅21:35 4:14  
10:38 고전2:4) 성령의 특별한 특징은 그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요15:26, 16:7 8:9 갈4:6)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창조와 구속을  
완성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 36. Trinity God (2 Corinthians 13:13) September 26, 2010

The Bible teaches that there is one God and that he exists as a superior, referred to a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is is not a collection of three entities, but rather the three aspects or three forms in which the existence of God resides. At the same time, they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The Father speaks to the Son, and the Father and Son can send the Holy Spirit. The profound mystery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s that each of the three persons possesses the entire essence of God and the three persons cannot exist separately from each other.

First, the Old Testament taught that there is more than one person in God and expressed it in the plural. (Genesis 1:26, 11:7) And the angel of Jehovah appears as one of God. (Genesis 16:7-13 18:1-21 19:1-22) Also, the Holy Spirit is referred to as a distinct person. (Isaiah 48:16, 63:10) Moreover, there are passages where the Messiah is described as someone who shares fellowship with other personalities.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revelation, the New Testament contains clearer evidence.

The strongest evidence is that in redemptive history, the Father sent the Son to the world, and the Son sent the Holy Spirit. Moreover, the Great Commission of Matthew 28:19 and

The name Burge is used in the Bible to refer to the Creator of all things (1 Corinthians 8:6), Ephesians 12:9 and 12:9.

1:17) As the father of Israel (Deuteronomy 32:6; Isaiah 63:16) and as the father of believers (Matthew 5:45 56:6,9,14 Romans 8:15) Often applied to the Trinity God.

However, in a deeper sense, it was applied to the first person among the superiors to express the relationship with the second person (John 1:14,18, 8:54 14:12,13). Since it is inherently fatherly, it is the father of all things on earth. The Father is just a shadow that reflects this. Third, God the Son -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is referred to as “the Son” or “the Son.” The name Son comes from the Father (John 1:14, 18, 3:16, Galatians 4:4) and is the Messiah chosen by God (Matthew 8:29, 26:63, John 1:49, 11:27). ) It is a name given because of a special birth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uke 1:32,35). As the Second Person of the Higher Unity, His characteristics are eternally derived from the Father (Psalm 2:7).

13:33 1:5) By eternal birth, the Father is the cause of the personal existence of the Son in the essence of God. The ministry especially attributed to the Son is that of mediation, as he is the mediator of creation (John 1:3).

1:2,3) He is the mediator of redemption. (Ephesians 1:13-14) Fourth, God the Holy Spirit - Minor Sinaanites, Unitarians, and modernists claim the Holy Spirit simply as the power or influence of God, but it is not in the Bible. In every passage he appears as a person (John 14:16, 17,26, 15:26, 16:7-15)

8:26) He has intellect (John 14:26), emotions (Isaiah 63:10, Ephesians 4:30), and will (Acts 16:7, 1 Corinthians 12:11). The Bible describes Him as one who speaks, seeks, testifies, commands, reveals, sighs, and prays. Moreover, He is distinct from His own power. (Luke 21:35 4:14 10:38 1 Corinthians 2:4)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Holy Spirit is that he come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John 15:26, 16:7, 8:9, Galatians 4:6), and in general,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to bring creation and redemption to completion.



### 37. 계시를 받은 자 (마 11:25-30) 2010. 10. 3.

27절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17:3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 생이라 했는데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계시를 받은 자, 영생을 가진 자, 창조교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 계시 받은 자, 저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란 것입니다. 보화를 찾았듯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요1:39) 계시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생을 맛보고, 계시를 통해 더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란 무엇이며, 계시를 어떻게 받으며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요?

첫째, 계시란 무엇인가요? 열어주는 것, 나타내는 것의 아포칼 립시스란 헬라어는 베일을 벗겨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법궤가 보이며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열어주실 때 그 세계를 보고 알고, 거기에 머물러 그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씀을 나누든지 기도를 하든지 난관을 당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열어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바울은 계시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도직도 계시를 받음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며 엡1:17 에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은 계시가 신앙생활에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에 관해 두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첫째, 신자 생명의 시작은 계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 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신자는 말씀을 접할 때 살아납니다. (예: 겔47:) 요일5:11-12 요5:24 참조 둘째,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계시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생활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어떤 일을 구한다면 반드시 계시의 조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계시는 누구에 게 임하나요? 25절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둘로 구분됩니다.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 곧 교만한 자에게 숨기십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자, 자기고집에 사로잡힌 자, 죄 없다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본주의자이며 자율주의자입니다. 계시는 그런 마음에 임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죄인임을 인정 하는 마음, 이사야, 바울, 엘리야 세레 요한 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계시가 임합니다. 세레요한이 받은 사이 바로 이런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눅1: 사40:) 계곡이 돋워지고 산과 언덕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지가 되고, 굽은 길을 곧게 됩니다.

그 마음을 평생 소유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시 1:3)

셋째, 계시 받은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 그는 그리 스도께 나아가게 되어있습니다. 2) 주의 안식을 체험합니다. 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계시를 즐기기 위하여 특별계시에 눈뜬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7. Those who received revelation (Matthew 11:25-30) 2010. 10. 3.

In verse 27, it says,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ose to whom the Son has revealed Him according to His will.” John 17:3 states that knowing the Father is eternal life, meaning that those who do not receive revelation cannot know God because they do not have eternal life. So, it can be said that those who believe in Jesus are those who have received revelation, those who have eternal life, and those who have a new religion. You can say that you have met and found Christ (John 1:39). Once you receive revelation, you will taste eternal life and go to a deeper place through revelation. What is this revelation, how do you receive it, and what does it mean? Do results happen?

First, what is revelation? The Greek word *apokalupsis*, meaning opening or revealing, means to remove the veil and show. Just as the veil of the sanctuary is torn and the Ark of the Covenant is seen and we go to the throne of grace, when God opens the world, we see and know it, and we stay there and live under His control. Just as Paul received a revelation in Damascus, whether we are talking, praying, or facing difficulties, what is clear is that an event that God reveals will occur. Paul, who had that experience, treated revelation as important. He claims that his apostleship was achieved by receiving revelation, and praying in Ephesians 1:17 that God would give him the spirit of revelation so that he could know God teaches us that revelation is important in a life of faith.

Therefore, we must be sure of two things about the revelation that the Bible teaches. First, the life of a believer begins with revelation. Just as the word of God came to Jonah, believers come alive when they encounter the word. (Example: Ezekiel 47:) 1 John 5:11-12 See John 5:24 Second, believers must

eat revelation like they eat their daily bread. In other words, this is called lighting. Just as you need food for basic living, if you seek a job, you must long for the illumination of revelation. Second, to whom does revelation come? Verse 25: "I thank you for hiding it from the wise and prudent, and revealing it to babes." It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You hide it from the wise and prudent, that is, the arrogant. Those who oppose the Bible and are obsessed with their own stubbornness. Now, it refers to those who say they have no sin, and revelation does not come to those who are humble, like Isaiah, Paul, and John the Baptist. Revelation came to the heart of a child, and this was what John the Baptist was preparing for. (Luke 1:40) Valleys were raised, mountains and hills were lowered, bumpy roads became flat, and curved roads became flat. It becomes straight.

Those who possess that heart throughout their lives are blessed. (Psalm 1:3)

Third, what results will appear to those who have received revelation? 1) He is destined to come to Christ. 2) He experiences the rest of the Lord. He said he would give us rest. Because the Lord took charge of it. He hopes that he will live as one who has awakened to special revelation in order to enjoy general revelation.

### 38. 나의 사랑하는 성경(시 119:97-104) 2010. 10. 10

시편 119편은 성경 중 가장 길지만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경을 맛본 사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에스라의 기록으로 돌리지만 칼빈은 다윗의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103절에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sweeter than honey)"했습니다. 계시를 우리가 쉽게 접하도록 성문화된 책으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며 성경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성경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부분에 66 권 신구약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말했습니다. 본문에는\_주의 법(97), 주의 계명(98), 주의 증거(99), 주의 법도(100 104), 주의 말씀(101 103), 주의\_규례(102)란 말로, 표현 했습니다.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의 (your)라는 말인데 성경이 주님께 속한 것이며 바로 주님과 동등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주님 사랑함이 성경 사랑함이란 말입니다. 행20:32의 바울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했는데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주님이란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 할 때 주님을 대하는 인격적 존중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삶에 의를 맛을 보고 정 상적으로 살게 하려고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의 교육함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개혁들이 믿은 성경관은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 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 시고 성경에 귀착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대위임령은 성경에 붙들 어 때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필요, 명백, 충족성의 원리 그리고 축자영감설을 믿습니다.

둘째, 성경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져야합니까? 성경에 대해 시인의 태도 4가지가 표현되었습니다. 1) 97절에 사랑 관계입니다.

종일 묵상하나이다. 99절에도 늘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2) 98절에 동행 관계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바로 성경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쁜 일상생활에 직장생활에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플 때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3) 101절 주종 관계입니다. 시인은 성경으로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왕이고 주라는 곳을 항상 인정하고 그것으로 통솔한다는 말입니다. 4) 103절 체험 관계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단맛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을 얻는가요? 세가지 결과를 비유로 말합니다. 1) 98절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됨 2) 99절 스승 보다 더 나은 지혜 3) 100절 노인보다 더 나은 명철을 갖습니다.

다윗처럼 성경을 사랑하여 진리 체험을 하여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자

### 38. My Beloved Scripture (Psalm 119:97-104) 2010. 10. 10

Psalm 119 is the longest in the Bible, but it shows the most important picture of happiness. Because it is filled with the confessions of those who have tasted the Bible. Some attribute this to Ezra's writings, but Calvin saw it as David's experience. Verse 103 says, "How sweeter than honey is the taste of the Word." The Bible is a codified book that gives us revelation so that we can easily access it. What is the Bible and how to maintain a proper relationship with it? I'm trying to think about what the results of love are.

First, what is the Bible? The first part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states that it is believed that only the 66 book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accurate and infallible Word of God. In the text, it is expressed by the words: Your law (97), Your commandments (98), Your testimonies (99), Your precepts (100-104), Your words (101-103), and Your ordinances (102). What are some common expressions? The word "your" is an expression that shows that the Bible belongs to the Lord and is equal to the Lord. Loving the Lord means loving the Bible. In Acts 20:32, Paul says, "I entrust you to the Lor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 think is equivalent. The formula is Bible = Lord. Therefore, when dealing with the Bible, we must have personal respect for the Lord.

This is because the Bible is filled with teachings, rebukes, corrections, and righteousness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in and to experience righteousness in all of our lives and live normally. The view of the Bible that the reformers believed in was Jesus' view of the Bible. I received the Bible as the voice of God speaking to me now. My word is spirit and life. He drove out the devil with the written word and taught us to follow the Bible. The Great

Commission is nothing more than holding on to the Bible. So we believe in the principles of authority, necessity, clarity, and sufficiency of the Bible, and in the theory of literal inspiration.

Second, how should we have a proper relationship with the Bible? The poet's four attitudes toward the Bible are expressed. 1 Verse 97 is a love relationship.

I meditate all day long. It is said that verse 99 is always recited. This means love. Love is something you do with your heart. So, it is a taste of love. 2) In verse 98, it is a companion relationship. He said, "Always be with me." The Gospel of Immanuel is to accompany the Bible. How is this possible? How much work do you still have in your busy daily life even after you retire from work? It is possible even when you are sick. 3) Section 101: It is a master-slave relationship. The poet said that he exercises moderation through the Bible. It means being controlled by the Bible. This means that we always acknowledge that the Bible is king and lord and lead with that. 4)\_Verse 103 It is an experiential relationship. The foregoing is aimed at individual spiritual experience. It is important to experience the sweetness of the Bible.

Third, what are the benefits of loving the Bible? The three results are described as metaphors. 1) Verse 98 Become wiser than your enemies 2) Verse 99 Have better wisdom than your teacher 3) Verse 100 Have better understanding than an old man.

Like David, let us love the Bible, experience the truth, and live a confident life.



### 39. 창조의 하나님 (시 148:1-14) 2010. 10. 17

창조는 계시의 시작이며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계시로 구원받은 신자가 최초로 경험한 일은 성령이 행하시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고후5:17) 창조 배후에 있는 구원이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죄라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1:3) 시편 저자들은 창조와 구원과 섭리를 잘 짜여진 세마포처 럼 연결시키면서 표현했습니다. 그 중 시편 148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여기서 시인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달, 별, 하늘의 하늘로 찬양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세상이 태원에서 잡다가 나오고 잡다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유출설입니다. 필로의 로고스도 그런 개념이지 만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다른 위와 일체가 되시며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고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1장에 나옵니다.

말씀하신 성부, 발설될 말(언어)이신\_ 성자, 말씀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바라) 유에서 더 나은 유를 만드셨습니다.(야짜르) 말씀으로 가장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호와 경외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언8:22-31) 전12장에도 젊은 날에 마음대로 하되 너의 모든 일이 창조자 앞에 심판받을 줄을 알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합니다.

둘째, 섭리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언 제나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 섭하시고 관리하시는가요? 6-13에 보니 그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

왕,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아이, 노인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모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손길을 생각하 면서 두려워하며 겸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창조 섭 리 뿐 아니라 구원 속에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 (14) 시인은 창조와 섭리를 보는 눈으로 죄로부터의 구원 곧 새 창조를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기때문에 창조와 섭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불가지론자, 우연론자 아니면 진화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모든 창조계획의 핵심을 구원에 두고 찬송합니다 성경적 창조관은 구원관,,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창조관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때 우리는 창조와 재창조의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 39. God of Creation (Psalm 148:1-14) 2010. 10. 17

Since creation is the beginning of revelation and the foundation of salvation, the first thing a believer who has been saved through revelation experiences is the event of creation performed by the Holy Spirit. (2 Corinthians 5:17)

Moses wrote the Pentateuch with the salvation event behind creation in mind.

God, who created something from nothing, has now created his people in the confusion and confusion of sin.

(Genesis 1:3) The psalmists expressed creation, salvation, and providence by connecting them like well-woven fine linen. Among them, Psalm 148 begins with Hallelujah and ends with Hallelujah. What does the poet praise here?

It is revealed that the reason we should praise the moon, stars, and heavenly sky is because God created them. It is an outflow theory that the world came out of a miscellany from Taewon and all things were created from a miscellany. Philo's Logos is also a similar concept, but the Logos of the Gospel of John is a person, God, one with other persons, and in Him is life and light, and the Trinity God, who exists for Himself, created all things. The evidence appears in Genesis chapter 1.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the work of the Father who spoke, the Son who was the word (language) to be spoken, and the Holy Spirit who executed the Word. He made something out of nothing (bara) and something better out of something (yazar). He made it the best with his words.

Those who believe in God, who created them, can have faith in the fear of Jehovah. (Proverbs 8:22-31) Chapter 12 of Ecclesiastes also warns us to do as we please in our youth, but know that all our works will be judged by the Creator. We must look at the created world, think of God, and give all glory to God.

Second, I praised Providence. After creating all things, God always intervenes and rules. In other words, we are praising Providence. He creates and

manages that creation. How do you intervene and manage it? In verses 6-13, we see that his glory leaps across the earth and heaven.

The king, the people, the dignitaries, the judges, the bachelors, the virgins, the children, and the elderly should all look at the hand of God and praise it. We must live fearfully and humbly, thinking of God's managing hand.

Third, we praised salvation. God's wonder blossomed not only in the providence of creation but also in salvation. (14) The poet sees and praises salvation from sin, that is, new creation, through the eyes of creation and providence. Because I knew salvation, I was able to know creation and providence.

If you don't know this, you are either an agnostic, a randomist or an evolutionist.

However, the poet praises salvation as the core of all creation plans. The biblical view of creation is the beginning of a view of salvation and a view of the world. How many attacks are there on creation? At this time, I believe that we must know the facts of creation and re-creation and live while looking to Jehovah.

#### 40. 섭리의 하나님 (마10:24-33) 2010. 10. 24.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들에게 주신 전도 지침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든든한 여러 무기를 주셨는데 그 중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섭리(providence)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심인데, 참새 한 마리가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나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일임을 예로 들면서 전도자가 당하는 모든 염려와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섭리하심 때문이란 것입니다. 본문에 섭리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이 온갖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말합니다. 24-26절에 제자와 선생을 구분시키면서 선생이 비난을 받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덩달아 비난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때 주님은 더 나은 세계를 보여줌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말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믿고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 억울한 일 당할 때 도리어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34-39절에 보면 이 세상에 겹을 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고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함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협력하게 하심은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케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와 전도 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게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여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신자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타납니다. 간섭과 협력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래서 섭리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32-33절에 사람 앞에 부인하고 시인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마귀 는 이것을 교란시킵니다. 섭리의 신앙으로 충만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있고 부요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40. God of Providence (Matthew 10:24-33) 2010. 10. 24.

This text is part of the evangelism instructions that Jesus gave to his disciples when he sent them out to evangelize. There, he gave them many strong weapons that provided encouragement and comfort, the most powerful of which was belief in God's providence. Providence refers to God's specific intervention. For example, even a sparrow being shot or two sparrows being sold for a penny are all done with God's permission. This explains all the worries and hardships that the evangelist faces. This means believing that something happens with God's permission. It is because of providence that believers can be thankful for everything through prayer and supplication without worrying about anything. How is providence expressed in the text?

First, it appeared as a result of God's intervention. We say that it is natural for disciples sent to the world to receive all kinds of attacks. Verses 24-26 distinguish between disciples and teachers and say that while teachers are criticized, the disciples are naturally criticized as well. When demons were said to have been driven out through Beelzebub, the Lord countered by showing them a better world. As disciples, when we are told that we are crazy or hear unfair comments, we must think of the fact that God is interfering, believe in God's intended purpose, and move forward humbly. We must praise God, knowing that we are blessed when we face injustice for the sake of the Lord.

Verses 34-39 say that God came to give this world a sword. When conflicts and fights arise, we just need to know God's intervention and do our part. You need to be armed with two things:

There must be wisdom and purity.

Second, it is revealed through cooperation in God's work. We must not misunderstand cooperation in God's work. I should not think that my efforts have contributed to God's work. Cooperation is God's wisdom to make us participate in his glorious work. In prayer and evangelism, God himself does his work. But He does it. The reason is so that we can participate in that glorious work and enjoy the same glory. How blessed is it to be God's co-worker? I am blessed that God uses me. Believers should be thankful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salvation.

Third, it appears as God's rule. We believe that God personally governs all things, including intervention and cooperation. Therefore, when we have faith in providence, we can live right before God.

Verses 32-33 say that denying and admitting before people is what you do before God. Those who believe in providence live before God, but the devil disrupts this. When you are filled with faith in providence, you have heavenly comfort, wealth, and power.



#### 4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 마1:1-16) 2010. 11. 7.

신약 첫 권인 마태복음은 구약 계시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마가복음이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이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인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kingdom of God)"이란 말이 20회 나오며 천국

비유가 15회 나오며 그 왕이 친히 말씀하신 6회의 긴 설교 (5-7, 10, 13, 18, 23, 24-25)가 나옵니다. 유대인인 신자들을 겨냥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1:1)

첫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머리로 부르셨습니다. 창 12:1-3의 2000년 전의 한 토막 사건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구원시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1) 큰 민족, 2) 창대한 이름, 3) 복의 근원, 무엇을 요구하셨나? 순종,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 문제, 의식주 문제, 약속을 오래 기다리는데서 오는 갈등, 방향 유리. 좌절 염려등이 화산 폭발처럼 계속 일어났으나 주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지경에서 믿었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창세기 3:15절의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다 수 천년이 지난 후, 그의 후손 유다지파에서 나온 다윗을 통해 또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시기를 영원한 왕권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 왕권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대로 여호와 의 종이 오시면 그렇게 되리라고 반복해서 직접 말한 것입니다.(사 42:, 61: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출생 부터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심으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 되었습니다. 2-16절에 나온 족보는 그리스도는 그들의 자손으로 오셔야하고 완성하셔야 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를 믿음으로 왕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 있고, 의, 평강, 희락을 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을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41. Descendants of Abraham and David (Matthew 1:1-16) 2010. 11. 7.

The Gospel of Matthew, the first book of the New Testament, is a book that serves as a link to the Old Testament revelations. If the Gospel of John speaks of Jesus as the Son of God, the Gospel of Mark shows Jesus as a servant, and the Gospel of Luke shows Jesus as a true man, then the Gospel of Matthew

shows Jesus a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So, in the Gospel of Matthew, the word “kingdom of God” appears 20 times, meaning heaven.

The poem appears 15 times and includes 6 long sermons (5-7, 10, 13, 18, 23, 24-25) delivered by the king himself. Targeted at Jewish believers

Therefore, it is repeatedly shown that the Old Testament revelations were fulfilled in this way in Jesus. (Matthew 1:1)

First, Christ came as a descendant of Abraham. God called Abraham from a family that traded idols in Ur of the Chaldees to be the head of salvation history. Although it is just a single incident from 2000 years ago in Genesis 12:1-3, it shows how He called us to be saved and how He saved us. Who called? God, what have you promised? 1) A great nation, 2) A great name, 3) A source of blessings. What did He ask for? Obedience is living as a worshiper. Actually, he had a lot of problems. However, God's work continued as it was. Family problems, food, clothing, and shelter issues, conflicts arising from waiting a long time for an appointment, and wandering glass. Frustration and anxiety continued to occur like a volcanic explosion, but the Lord gave him tests to endure and refined him into a ancestor of faith. Paul estimates that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and believed beyond belief.

Second, Christ is the descendant of David. The promise of salvation through the descendants of the woman in Genesis 3:15 was revealed through Abraham's covenant. Thousands of years later, God established another covenant through his descendant, David, from the tribe of Judah. When David was young, he unilaterally called

He wants to establish an eternal kingship. However, his life did not fully establish his royal authority. This is because his descendant is Christ. It means that it will come true. He has repeatedly said that it will happen when the servant of the Lord comes, as Isaiah prophesied (Isaiah 42:61:

Third, only those who accepted Jesus Christ were born as descendants of Abraham and David, and the prophecy was fulfilled. The genealogy in verses 2-16 shows that Christ is the one who must come as their descendant and complete them. He must be both God and man. This i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A believer who is already in Christ enjoys royal power by believing in Him. He is in the Holy Spirit and is destined to enjoy righteousness, peace, and joy. Paul called that blessing the Holy Spirit. I hope that your life will be one where you experience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 42. 약속된 치료 (마4:23-25) 2010. 11. 14

그는 자기, 백성을 물, 강 그리고 불의 위험가운데서 절대 보호하 실 뿐 아니라 모든 질고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왕이시라고 이사

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 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 운 천국의 치료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치료이며 그리스도의 치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완전한 치료가 나 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 천년 계속되다가 성령이 강림한 후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그 절 정을 보이다가 가 나라, 각 종족, 각 방언에 그 놀라운 역사가 확 산되어 우리에게 까지 왔던 것입니다.

첫째,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 루 다니사... 고치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 예수께서 친히\_치료하십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데리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다른 수고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분의 완벽한 치료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도 모두 치 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 분을 환영하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 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하고 겸손하 시기 바랍니다. 에스겔37:1의 치료의 강수가 문지방에서 흘러나오 는 것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32절을 보아서 모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33절에는 사람들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끌려 온 것 자체가 은혜이며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역사-내 말 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니 어렵다하여 다 떠나가고 소수만이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 까라고 합니다. 완전한 치료는 영원한 치료이고 다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치료입니다. 이것은 영적 치료를 중심한 육적\_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 대상은 오직 그의 백성에게만 효과가 절대적이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앓는 것을 고치십니다. 각종 영계 육계 각종 병 즉, 간질병, 중풍병, 소경, 난치병 등을 모두, 고치십니다;

셋째, 치료의 효력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낮은 자의 마음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치료의 힘은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이것을 종합한 것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믿음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치료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치료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지금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된 치료를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 42. Promised Healing (Matthew 4:23-25) 2010. 11. 14

He is the King who not only protects himself and his people from the dangers of water, rivers and fire, but also heals them from all afflictions.

And He healed all diseases... Verse 24 says that He healed all the sick, those suffering from various diseases. This amazing work of healing in heaven is the healing of the Gospel and the healing of Christ. An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receive complete healing. So, this healing ministry continued for the Israelites for thousands of years, reaching its peak in the early church that began after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and then its amazing work spread to all nations, tribes, and dialects, and has reached us.

First, who is your therapist? Verse 23 says, “Jesus went throughout all Galilee, healing...” In a word, the Lord Jesus, the King of God’s kingdom, personally heals. How did the Lord heal a paralyzed man when his friends brought him to the Lord? Other efforts and circumstances are important, but the Lord has declared the forgiveness of sins. We, who have been saved by receiving His perfect treatment, welcome Him, follow His guidance, and pray for good times, believing that He is the One who can heal all the problems we face. Please exalt, praise, and be humble to the Lord who heals. Please humbly repent and ask, knowing that the river of healing in Ezekiel 37:1 flows from the threshold.

Second, who was the target of the treatment? Self, the people. Looking at verse 32, it seems like everyone. Verse 33 says that He healed the people and those who were brought in. Being drawn to the Lord itself is a grace and we can say that we are his own people because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his father draws him. Example: The history of five loaves and two fish - My

words are spirit and life. When everyone leaves because it is difficult and only a few remain, will you also go? For there are words of eternal life; to whom shall we go? Complete treatment is permanent treatment and treatment that can never be done again. This is physical treatment centered on spiritual treatment. So, the true target of treatment is only his people, and the effect is absolute. He heals all diseases, all infirmities, and all illnesses of his people. He heals all kinds of diseases in the spiritual and physical worlds, including epilepsy, paralysis, blindness, and incurable diseases.

Third, the effect of treatment He healed them all. how? He heal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revealed through joy and faith.

Its effectiveness is absolute. It is effective in the hearts of lowly people. The power of healing from above appears wherever we go. Thank you for putting this together. Be thankful in all things; Gratitude is the best expression of faith. Indicates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Heavenly healing is what we have been promised. When we move forward with repentance and faith, the Lord heals us now. We hope you enjoy all the treatments you have been promised.



### 43. 예배하는 자의 감사 (마2:1-12) 2010. 11. 14.

하나님 나라는 예배의 감사로 충만한 곳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그 감사로 그의 왕권이 나타난 것을 복음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마14:19, 요11:41) 본문의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째, 예배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감사였습니다. 2절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러 왔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동방박사란 파사의 천문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약 곱의 별에 대한 발람의 예언(민24:17)을 그대로 믿고 장차 올 메시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도사해 동남부 아라비아 사람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고난 속에서 구속자의 강림을 기대하였고 유다 서에 나오는 예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것을 보면 동방박사들도 계시의 접촉으로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그에게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때가 되어 그 별을 따라 온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배의 목표를 향하여 영적 긴장으로 실감하고 성취를 향하여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진실되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 대상을 성실하게 찾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그 나라 왕께 예배하는 것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자리에 가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찾아 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길 없는 사막을 헤치며 오는 것도 힘드는데 그들 목표의 구심점인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의 목적을 항상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고 후4:4) 그러나 사탄의 술수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목적을 가지 고 성실하게 행할 때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10) 인생의 분명한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 문제가 일어나도 참으로 예배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있는 거기 서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 의 예배란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권 신앙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셋째,근 분과의 연합을 이룰 때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동방박 사는 마귀의 체계가 있는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목 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 니다, 그 후 다른 계시를 받은 그들은 감사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감있는 보호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린 것은 예배의 절정이 연합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의 극치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만지고 접촉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 절기에 동방 박사의 점진적인 예배를 배워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43. Worshiper's Gratitude (Matthew 2:1-12) 2010. 11. 14.

The kingdom of God is a place filled with worship and gratitude. King Jesus was thankful even in the face of problems, and we find in the Gospel that his

royal authority was revealed through that gratitude (Matthew 14:19, John 11:41). We can discover true gratitude in the worship of the wise men in the text. there is. What kind of gratitude was it?

First, it was gratitude for making worship the goal of life. Verse 2 clearly states that the wise men saw the star and came to worship the king. They are said to be the astronomers of the Eastern Bak Saran Pasa. While studying the stars, they believed Balaam's prophecy about the number of stars (Numbers 24:17) and seemed to have hope for the coming Messiah.

A contemporary of Abraham, an Arabian from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Dead Sea, expected the coming of the Redeemer through suffering even if no one had taught him. Enoch, as mentioned in the Book of Jude, walked with God for 300 years and predicted the first and second comings of Christ, so the wise men from the East also predicted it. Through the contact of revelation, it seems as if I have lived as a person who looks at the king of the coming kingdom of God, reveres him, and worships him, and when the time comes, I have followed that star. Only those who have received revelation can realize the goal of worship with spiritual tension, wait for its achievement, and make sincere efforts with gratitude.

Second, we sincerely searched for the object of worship. Even if his purpose in life was to worship the king of that country, he encountered many difficulties in actually getting there. It is difficult to cross the mountains, cross the water, and wade through the pathless desert, but they have lost the star that is the central point of their goal. The devil always confuses the purpose of faith. (2 Corinthians 4:4) But even if he was deceived by Satan's tricks. As they acted with purpose and sincerity, the star suddenly appeared. At that time,

they were very happy. (10) Even though many problems arise in order to reach a clear goal in life, God will meet you when you are faithful to meet the God you truly worship. This is becaus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is manifested in a sincere and truthful attitude. This may be a moment or it may take a long time. This is because everything will be in order when the faith in sovereignty is restored.

Third, gratitude arose when unity was achieved with the nearby disciplines. The wise men went down the devil's precepts, but God achieved his purpose through them. They worshiped the child and offered him golden frankincense and myrrh. After receiving another revelation, they returned to their homeland with gratitude. This is because I experienced God's realistic protection.

Worshipping Baby Jesus and offering him worship is knowing that the pinnacle of worship is unity and accepting that only Christ is my king, my priest, and my prophet. This is the pinnacle of true worship.

It is like a blind man opening his eyes and touching and being contacted.

During the season of thanksgiving, may we learn the progressive worship of the Magi and live a life filled with gratitude.

#### 44. 너는 나를 따르라 (요21:20-23) 2010. 11. 29

일일복음잔치를 준비하고 복음을 다시 듣기 원하는 여러 분에게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온 주의 명령을 통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생활 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려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아야하고 믿을 때 받는 약속을 알고 그를 따르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의 소개로 메시야이신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날 주님은 부르시면서 사람, 낚 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을 떠나간 베드로는 눅 5:에서 실패 중에 말쑥을 순종함으로 물 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했을 때."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인이로소이다"고 고백했고 주님은 또 네가 사람을 취하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16:에서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고 백도 했고 죽을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도 했으나 그는 결국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에도 믿지 못해 고기 잡으려 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 의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입니다.

자아가 부인된 그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자기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알면 자기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되고 겸손해집니다.

둘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격적 교제를 몰랐던 그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의 장래까지 걱정했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주님을 따르기에 바쁜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 어떻게 주를 따를까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기도하요 교제하요 전도하는데 헌신해야합니다. 이 다섯가지는 예수님을 알 때 자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복음 전도에 순종하기위하여 우리가 할일은 태신자를 품고, 말과 생활로 전도하고 결과를 주께 맡겨야합니다. 기스도를 주로 영접했나요? 주님을 따르며 이 주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심혈을 쏟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44. Follow me (John 21:20-23) 2010. 11. 29

We hope that the world of the gospel will be opened to those who prepare for the daily gospel feast and want to hear the gospel again. Through the Lord's command at the end of the Gospel of John, I will try to think about what the gospel is and what living a gospel life is like. The gospel is Jesus.

Receiving the gospel refers to believing in Jesus. So, those who receive the gospel must know who Jesus is and what he did. He must know how to receive him, know the promise he receives when he believes, and know well how to follow him.

First, who is Jesus? Peter did not know Jesus at first. One day, through Andrew's introduction, he met Jesus, the Messiah, and followed him. On that day, the Lord called us and promised to make us men and fishermen. Afterwards, Peter, who left the Lord, had the experience of catching many fish by obeying the Word during his failure in Luke 5. He confessed,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ner," and the Lord said, "You will take people again." In Matthew 16, he confessed his faith to the Lord and promised that he would follow the Lord even if he had to die, but in the end he denied the Lord three times. Even after meeting the resurrected Lord, he could not believe it and went fishing. The reason was because I did not know Jesus, and when the resurrected Lord appeared the third time and asked me a question about love, I gave a strange answer,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recognized Jesus as the Son of God through his failures.

Denied of his self, he came to know Jesus better. He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If you know Jesus, you will know yourself. To know the gospel is to know Jesus. At that time, he realizes that he is a sinner and becomes humble.

Second, how do we follow Jesus? Peter did not know how to follow the Lord. He did not know the personal teachings of following the Lord individually, so he cared a lot about others. He was also worried about John's future. He didn't know that he was too busy following the Lord.

How do we follow the Lord after receiving the gospel? We must read the Word, obey it, pray, fellowship, and dedicate ourselves to evangelism. These five things happen naturally when we know Jesus. In particular, in order to obey the gospel evangelism, what we must do is embrace new believers, evangelize through words and life, and leave the results to the Lord. Did you

mainly accept Ginseudo? We must become believers who follow the Lord and pour our hearts into spreading this Lord to our neighbors.



#### 45.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라 (마5:13-16) 2010. 12. 5.

가난한 심령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내적 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이 두 사명은 모든 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때 다른 것이 풀려 나갑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첫째, 소금 역할에 성실한 것입니다. 빛이 외적 방면의 중심이 라면 소금은 내적 방면에 중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보다 소금과 빛이란 순서 자체가 그 나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 되고 충만하여 그것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금역할이 빛 의 역할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생활에 소금 이 중요합니다. 간수가 들어가서 몸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간수 를 제한 순 소금은 치료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 화폐 수단으로 군인급료로 돌소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속 금을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를 1)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 으로 고르게 함 같이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막9:50) 2) 경고 의 의미로 지옥형벌에 대한 경고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막9:49)

구약 제사드릴 때 소금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소금의 독특한 맛이 제물의 성격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죄악을 상징합니다. 3) 부패방지용으로 소금을 넣으라 고 말합니다.(눅14:34) 본문에 주님은 소금의 짠 맛에 초점을 맞추 시면서 맛과 관련시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가지 수평의 복은 모두 소금 역할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긍휼, 화평, 청결, 박해받음을 이루려면 소금이 되어야하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금 같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를 본 삼아 소금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 세상의 소금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빛의 사명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5:16) 코스모스란 우주, 물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는 시공간으로 된 인간 활동무대를 가리킵니다

다 소량의 내경지 생타내는 영입니면 밖에서 하나, 남은 아라의

열매를 맺히려면 소금도 많고 빛도 많아야합니다. 그리고 빛이란 만물 중심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 빛을 윤리적 요소로서 1) 착 함. 2) 진실함 그리고 3) 의로움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품 의 노란 자위를 모든 방면에 나타내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을 가리킵니다. 우리 시대는 빛의 방향을 잘못 선택하여 가고 있어 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주의 쾌락주의 인간주의로. 나갑 니다. 이것은 적은 방면의 빛이지 근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발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일 뿐입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 의 소금의 위치를 확신하고 어디서나 섬김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들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45. Be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Matthew 5:13-16) 2010. 12. 5.

Christians who have been blessed with a poor spirit show their identity by serving as salt and light in the world. The church is the light and salt that has an important influenc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this world. Because these two missions are the essence of everything, when we understand this, something else is released. What kind of life do you live in the world?

First, it is sincere in its role as salt. If light is the center of the external aspect, salt should be the center of the internal aspect. The order itself of salt and light rather than light and salt means that the kingdom begins with a poor spirit and is filled with it, thereby showing fruit. This means that the role of salt is connected to the role of light. Salt is important in human life now and then. Since the bitterness contained in it is harmful to the body, pure salt with the bitterness removed is said to be a cure. At the time of Jesus, salt was used as a currency and stone salt was given to soldiers as wages. In the Bible, gold is used in three ways: 1) It has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He told us to be at peace with one another, just as we are seasoned with salt. (Mark 9:50) 2) Salt was used as a warning against punishment in hell (Mark 9:49).

The Old Testament prohibition on adding salt when making sacrifices appears to be a prohibition because the unique taste of salt can change the character of the offering, symbolizing sin. 3) It says to add salt to prevent corruption. (Luke 14:34) In the text, the Lord focuses on the salty taste of salt and explains it in relation to taste. Without Christian sacrifice, beautiful fruits cannot appear. All four horizontal blessings are based on the premise of the role of salt. In order to achieve mercy, peace, cleanliness, and persecution, we must make a plan and move forward with the thought of becoming salt. We

are alive through Christ's salt-like sacrifice. Taking him as an example, we act like salt in the world by trying to benefit others through self-sacrifice.

Second, live with the goal of the mission of light. What is the world? (5:16) Cosmos refers to the universe, a stage of human activity made up of space and time that is not material and invisible, but is governed by some force.

If it is a spirit that produces a small amount of inner seedlings, then one from the gourd and the remaining are.

To bear fruit, there must be a lot of salt and a lot of light. And light means the center of all things. Paul uses that light as an ethical element: 1) goodness. 2) truthfulness and 3) righteousness. This refers to the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that is, the display of the yellow masturbation of God's character in all aspects. Our age has chosen the wrong direction of light and is waiting for that light. With miracleism, hedonism and humanism. I'm leaving. This is a small aspect of light, not the fundamental light. It is simply light as a reflector that receives and emits God's light. I hope that you will become a saint who reveals the glory of God's kingdom by being confident in your position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and living a life of servant leadership wherever you are.

#### 46. 말씀의 강력 (시119:65-72) 2010. 12. 12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기적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육체건강 주의 같은 거짓 운동인 기복신앙을 벗고 초대 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체험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시인의 체험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 시편119편의 한 단락을 통해 말씀의 능력에 관한 진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본문에는 성경만이 가진 세 특성을 보여줍니다. 1) 성경은 선합니다. 선이란 은혜, 착한 것, 부드러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치료는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 접촉하면 선해집니다. 약속을 믿을 때 선을 베푸소서(55, 68) 38년 된 환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치료가 즉시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접하는 장소, 사람 그리고 상황 마다 착한 일이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성경에 접 하고 받으면 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른 교훈에 착념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2) 성경은 진실합니다.(69)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의 바다인 성경에 들어갔다 나와야 진실해 집니다.

악인의 악로와 포자사람이 제지시에니다, 경인은 오의 자입니다.(72)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구원을 얻게 할뿐 아니라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지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딤후3:16에 보면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부요는 성경을 접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 진실함, 그리고 부요함으로 채워진 성경에 근거를 가질 때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둘째, 어떻게 말씀에서 유익을 얻습니까? 앞선 말한 선성, 진실성 그리고 부요성이 내 것이 되려면 시인처럼 두 가지를 힘써야합니다.

1) 첫째, 믿어야합니다. 믿음을 화합할 때 유익이, 생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하고(66) 명철과 지식이 충만해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고생과 만나를 주신 이유가(마4:4 신8:3) 말씀을 믿게 하려는데 있는 것처럼 말씀을 믿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2) 둘째, 고난 속에서 즐겨야합니다.(67, 71), 고난과 말씀의 유익은 같이 움직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가, 대목 보는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하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에야 말로 말씀에 목숨을 걸 시간입니다. 경이지의 카이도 지부해로 이어 바하니다추적을 말

매가 없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믿고 즐거워함으로 배우게 되며(71) 그대로

46. The Power of the Word (Psalm 119:65-72) 2010. 12. 12

We must pursue biblical experientialism in order to rid ourselves of the false movements of miracleism, prosperityism, successivism, and physical

healthism that are coming in like a tsunami, and to receive and practice the teachings of the apostles like the early church. In order to make the poet's experience of shedding tears and warming his heart while reading the Bible become ours, I will try to think about the truth about the power of the Word through a passage in Psalm 119.

First, what characteristics does the Word have? The text shows three characteristics that only the Bible has. 1) The Bible is good. Goodness is said to be grace, goodness, softness, and beauty. Therapy is a good thing.

When you come into contact with the Bible, you become good. Be good to me when I believe in your promise (55,

68) Just as healing occurred immediately when a 38-year-old patient was told to get up from his bed and walk, good deeds appear in every place, person, and situation where the word is encountered. When an evil person comes into contact with the Bible, he or she changes into a good person. If you pay attention to correct teachings, you will automatically become humble. 2) The Bible is truthful. (69) Since humans are lies, we must enter and exit the Bible, the sea of truth, to become truthful.

The evil path of the wicked and the evil people are the city of restraint, and the wise man is the ruler of five.

(72) The abundance of life is overflowing. It is filled with guidelines to not only achieve the most fundamental salvation, but also to enjoy a life of salvation. In 2 Timothy 3:16, it is said that it is to achieve salvation.

True wealth comes from access to the Bible. Because in the Lord are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There is power, life, and healing only when grounded in the Bible, which is filled with goodness, truth, and riches.

Second, how do you benefit from the Word? The goodness and truth mentioned earlier

In order for sex and wealth to be mine, I must strive for both, like the poet. 1) First, you must believe. Benefits arise when beliefs are united.

It's alive and moving. By making an accurate diagnosis (66), you will be filled with understanding and knowledge. Just as the reason why suffering and manna were given to Israel (Matthew 4:4, Deuteronomy 8:3) was to make people believe the Word, strange things happen when we believe the Word. 2) Second, we must enjoy suffering. (67, 71), suffering and the benefits of the word move together. We must view the sufferings of believers as precious. When you are suffering, you can see the passage.

If you immediately realize the truth and obey it, something will happen. It is only when you are suffering that it is time to risk your life for the word. The Kai of this world also leads to Jibuhæ and speaks of the Bahanidha chase.

There is no point and you end up wandering. If you are currently suffering, you can return to the Word and learn by believing and rejoicing in the Word (71).



#### 47. 성탄의 즐거움 (마8:23-27) 2010. 12. 19.

본문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섭리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7절에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제자들 마음에는 성탄의 즐거움과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즐거움은 첫째 문제를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이사야 45:7에 보면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과 간격이 생깁니다. 주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가 주무시는 곳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주께서 육계, 영계,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풍랑은 욥도 모르고 그 친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난 후 열어주시니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회개와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그에게 경배할 목적에서 왔던 동방박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을 놓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이고, 헤롯은 탐욕의 로 무자비하게 베들레헴 두 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풍랑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주신 자나 취하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풍랑 속에서도 별천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주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풍랑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을  
묵상하고 주목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풍랑 속에 주무 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야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주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의 경험적 지식은  
머리에만 남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서 행한 기적에 동참했 고  
그 때마다 행하신 말씀을 주목했고 따져보고 따랐지만 현실의 풍랑 앞에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성탄절을 수 없이 맞이하면서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은 바로 주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 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가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그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는 사람,, 수단 믿는 사람, 경험 믿는 사람, 경력 믿는  
사람은 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은밀하게 있지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풍랑과 능력을 인정할지라 도 주께  
부르짖는 것이 없다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신비스려 운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돌아 보시나이까?라 눈이 유의 리치하는  
현의 저바이니아니다. 국의 식단을 의

신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바 울은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귀한 것 임을  
찬양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47. The Joy of Christmas (Matthew 8:23-27) 2010. 12. 19.

The main text is that God calms the storm with the word and restores the natural world with the word.

Strishi is an event that shows the Creator and Providence. In verse 27, “Who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there was grace and peace in the hearts of the disciples, the same joy of Christmas. This joy of grace and peace comes when we acknowledge the first problem. Isaiah 45:7 says that God, who created peace, also creates tribulation. When we do not acknowledge this, a gap arises between us and the Lord. A storm arose on the boat the Lord was on. The devil worked where the Creator slept. It turned out that the storm occurred to fulfill God's purpose. The purpose is to teach and show us that the Lord is King over the physical, spiritual, and natural worlds.

Neither Job nor his friends knew about the storm that happened to Job. However, after going through that process, God opened the door, and complaints and complaints were transformed into gratitude, repentance, prayer, and praise. There was also a problem with the wise men who learned of the birth of the King of the Jews and came with the purpose of worshiping him. We don't know how many storms there were when the Lord came, such as missing the stars, religious leaders being indifferent, and Herod mercilessly killing all the male children under the age of two in Bethlehem out of greed. This is the narrow path along which the Holy Spirit leads us. When you know that God is the one who gave and the one who took, you can enjoy the joy of heaven and earth even in the midst of storms.

Second, we must acknowledge the power of the Lord. Those who only look at the storm and meditate and pay attention to it have no hope. We must look to the Lord who sleeps in the storm and acknowledge His power.

When the Lord was sleeping due to a sudden storm, his disciples' experiential knowledge remained in their minds and they were afraid. They participated in the miracles performed earlier, and each time they paid attention to, considered, and followed the words He spoke, but their hearts melted in the face of the storm of reality. Even though we have celebrated Christmas countless times, the reason we have not been able to go out is because we do not believe in the power of the Lord. The reason we go out and worship baby Jesus on Christmas is because we believe in Him, the Almighty. People who believe in themselves, people who believe in means, people who believe in experience, and people who believe in career will perish. of the Lord; Please acknowledge your abilities. Although he is in secret, please believe that he is working.

At that time, we will possess this joy.

Third, what we must do is pray. It is mysterious that even if we recognize the storm and the power, we cannot have joy if we do not cry out to the Lord. “Lord, why do you not look on us when we are about to die?” This is the place where the eyes are rich. The diet of soup

When I saw the God Christ, I saw His glory and was full of grace and truth. Paul explained the glory of the church and praised how precious the birth of Christ was. May you create new history with the joy of this Christmas.

#### 48. 그리스도 탄생과의 연합 (엡2:1-10) 2009. 12. 20.

신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그의 생과 깊이 연합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3:16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탄생으로부터 승천까지 완성된 구속을 찬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15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은 탄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됨으로 영 광스러운 교회가 되었고 그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겸손입니다. 빌2:6-7에 보인대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 지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서의 출생, 구유에 누운 아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도 모두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겸손의 삶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겸손이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오신 것은 "동정녀 탄생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고백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연합되어 겸손한 자로 살겠 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둘째, 새로움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생은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과 연합됨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된 사람은 새사람으로의 탄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자는 그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언제나 새로움을 맛 봅니다. 이 말은 1)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2)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3)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승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속은 그리스도의 탄생과의 연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 부활, 승천과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탄생과의 익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겸손의 태도, 그의 새 생명의 능력 그의 승리의 보장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48. Union with the Birth of Christ (Ephesians 2:1-10) 2009. 12. 20.

When a believer receives Christ, he or she is already deeply united with his life. Paul praised the redemption completed by Christ from birth to ascension in 1 Timothy 3:16.

1 Timothy 1:15 also says, “This is a faithful saying: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This is a song of birth. By being united with the birth of Christ, we have become a glorious church and have received all his blessings. What does it mean to be united with the birth of Christ?

First, you must have a humble attitude to life. The birth of Christ itself is humility. This is because, as shown in Philippians 2:6-7, He emptied Himself, took on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gave up His power and rights, and

humbled Himself. The birth in the home of Mary and Joseph, the baby lying in the manger, the shepherds and wise men, and Simeon and Anna all met Jesus in a humble manner, all with the purpose of teaching a life of humility. The fact that Christ came in an atmosphere filled with humility includes the meaning that we who profess our faith, “I believe in the virgin birth,” will unite with Christ’s humility and live as humble people.

Second, it signifies the beginning of a new life. Birth is an event in which life is born. Jesus was born as a true man and true God without sin, and with the full power of God. Humans are mere tools. Therefore, union with the birth of the Lord became the basis for a new change from sinners to becoming righteous. Because those who are united with the birth of Christ experience the birth of a new person. Those who are born again with faith in Him always experience newness when they acknowledge His Lordship. These words refer to 1) acknowledging God's authority, 2) being governed by God, and 3) living in God's presence.

Third, victory was guaranteed. Paul understood redemption as union with the birth of Christ. It points to his union with hi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erefore, the benefits of his birth come to us, and his victory becomes my victory. Therefore, we must live as those who enjoy the victory of Christ and share it with those who do not know it. Living as one who enjoys his attitude of humility, the power of his new life, and the assurance of his victory is the gift of Christmas we have received.

[The End of Living Stream Book15 (2010)]

Soli Deo Gloria